

YWCA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보수)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 2012 Vol. 493 09 September
YWCA

한국YWCA의
전국 회원YWCA 가족

가	다	서 울 02.3705.6000	울 산 052.247.3520	천 안 041.575.0961
강 릉 033.651.1385	대 구 053.652.0070	서 천 041.951.6400	원 주 033.742.6090	청 주 043.265.3700
거 제 055.682.4950	대 전 042.254.3035	성 남 031.708.2503	의정부 031.853.6332	춘 천 033.254.4878
경 주 054.772.8141	동 해 033.531.3007	세 종 041.865.0872	익 산 063.857.8910	충 주 043.848.3240
고 양 031.919.4040	마	속 초 033.635.3523	인 천 032.424.0524	타
광 명 02.895.1966	마 산 055.246.8746	수 원 031.252.5111	자	통 영 055.646.2547
광 양 061.762.0012	목 포 061.242.1611	순 천 061.744.7990	전 주 063.224.5501	파
광 주 062.524.3511	바	아	제 주 064.711.8322	파 주 031.945.5998
김 해 055.332.6000	부 산 051.441.2221	안 동 054.854.5482	제 천 043.646.6009	평 택 031.651.7701
나	부 천 032.668.9700	안 산 031.483.6536	진 주 055.755.3463	포 향 054.274.4444
남양주 031.577.7762	사	안 양 031.455.2700	진 해 055.542.0020	하
남 원 063.632.7002	사 천 055.833.2344	양 산 055.367.1144	차	하 남 031.793.7771
논 산 041.736.7393	서귀포 064.762.1400	여 수 061.654.2161	창 원 055.283.9488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Y운동체



글 | 유금중(연합회 후원회 이사)

해병대 출신들은 군 의무를 마치고 제대 하고는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라고 한다는 말을 들었다. 왜 그런지 이 말이 나의 마음에 새겨지게 되고 회원Y이사위원 훈련에서 강의를 할 때 자주 인용하는 말이 되었다. 나는 이 말을 “한번 Y회원은 영원한 Y인이다.”로 대입하여 Y지도자들의 마음에 새겨두고자 했었다.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Y인으로 관계를 이어오고 있으니 이 말은 다른 이들에게 한 말이 아니라 나에게 한 말로, 나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있음을 고백한다.

지난 달 YWCA 창립 90주년을 기념하는 전국회원대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환호하는 소리가 그 넓은 체육관을 가득 채웠고, 회원들이 자축하며 기뻐 외친 소리가 회원들의 가슴을 꽉 채웠다. 이 날의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사를 받으셨고 영광을 받으셨다고 확신했다. “그래 너희들은 나의 동업자로서 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자 충성하였다. 나는 너를 안다. 너희들의 열매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열매 Y라는 운동체로서 잠깐 생각해 보자. 자기를 위해 소리 내지 않고 힘없는 이들을 위한 소리가 되어 준 일, 건강이 있어도 기술이 없어 경제적 빈곤에 있던 이들을 위해 일자리를 갖도록 도운 일, 사회계층의 편견으로 인격적 대우를 받지 못하던 이들에게 동등한 인격자로 대우한 일,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고독의 수렁에서 고통 받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한 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유산을 관리하는 사명자로서 깨우쳐준 일. 이런 일 외에도 더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여성, 청소년에게 손을 내밀어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수많은 여성들을 Y의 문안으로 불러 들였고,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그분의 나라 확장에 기여하였다. 비록

우리의 열매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로 결실이 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만 분명하게 아시며, 열매를 인하여 기뻐하시는 줄 확신한다.

부산Y 회장 시절 실무진들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마음에 부담을 느끼며 일한 적이 많았다. D-day가 되어 시작을 알리는 시간이 다가 오면서 내 머리 속에는 몇 명이나 참가할까? 너무 수가 적으면 어떡하지? 우리가 노력하고 준비한 수고만큼 많은 분들이 오셔야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러한 걱정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셨고 누구를 위한 걱정이었는지도 알게 해주셨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일로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믿고 하는 프로그램이라면 수의 적음과 많음에 연연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얻어진 열매라면 많은 사람이 와도 자랑스러운 것이 아닌, 그리고 적은 사람이 와도 부끄러운 것이 아닌, 하나님만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된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우리 Y는 앞으로 10년을 통하여 100주년 맞을 준비로 하나님만이 기뻐하실 열매를 맺어드리자. 그러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 묻자. 그리고 그분의 뜻을 알아차린 후 사람들의 고견을 듣고, 프로그램을 완성하는 단계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기도로 준비하자. 이런 과정을 거쳐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사람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칭찬과 감사는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을 안다.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10년으로 삼자! 100주년을 향하여 전국 Y회원들이 달리는 경주는 이미 시작되었다. 하나님을 선두에 세우고 우리는 그분의 뒤를 따르도록 열심히 뛰자. 나를 영원한 Y인으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뛰자 하실 때까지 나는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다.



Cover Story

한국YWCA 90주년 전국회원대회

2012년 8월 18일, 전국 각지 YWCA 회원들이 한자리에서 만나는 사실에 Y가족들 마음은 한껏 부풀어 올랐습니다. YWCA 회원들이 만들어 낸 알록달록한 색깔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Y가족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의 색깔도 이처럼 풍성한 조화를 이루어냅니다.



Contents

2012 Vol.493 09

- 03 90주년 특별기고 ●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Y운동체 | 유금중
- 04 YWCA 역사읽기 ● YWCA 문화이야기 | 이요식
- 06 YWCA 90주년 지금 이순간 ● ① 한국YWCA 90주년 전국회원대회
● ② 한국YWCA 90주년 청소년전국회원대회 | 홍진영
- 12 Y-정책 | Y돌봄 연구소 ● YWCA 돌봄사회적기업 현황 분석 | 돌봄조직연구TF팀
- 14 | Y돌봄 현장 ● 부친은 지금, 돌봄회원 조직 변화 모색 중! | 송록희
- 16 YWCA와 사회 ● '강남 스타일' 에서 배우는 한국YWCA의 문화 지향점 | 윤세민
- 18 체험, Y현장 ● 제14차 한·일Y청(소)년협의회 | 김광식
- 20 조명 : Y가 만난 Y사람들 ● 부산YWCA 브라스밴드
- 22 북한을 만나다 ● 남북 농업협력 및 지원활동과 안주지역 수해피해 상황 | 김필주
- 24 평화사선 ● 영화 코리아 | 하은경
- 25 성명서 ● 성범죄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촉구하는 한국YWCA 성명서
- 26 YWCA 생명이야기 ● 생명의 연약함을 사랑하고 돌보는 사회를 위하여 | 이윤숙
- 28 월레아침기도회 ● 나는 집 안에서 살아본 적이 없다! | 장빈
- 29 연합회 소식
- 30 YWCA 90주년 영화 <사랑을 말하다>
- 31 회원YWCA 소식

제48권 제7호 통권 493호 2012년 9월 20일 발행(등록번호 라-746호) 발행 한국YWCA연합회 발행인 차경애 편집인 유성희 편집위원 김진형·백수경·윤혜원·이경순·이은영 편집 박은실·이주영·정서연 발행처 서울 중구 명동1가 1-3 한국YWCA연합회 전화 02-774-9703 팩스 02-774-9724 http://www.ywca.or.kr 편집디자인 (주)세이미디어(02-730-0746) 구독신청안내 구독신청요금 1만 원(1년분)을 내시면 대으로 보내드립니다. 농협 386-17-000052(한국YWCA연합회) 송금 후에는 연합회 사무실로 입금 사실을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YWCA 문화이야기

글 | 이요식(전 서울YWCA 총무, (사)한일여성친선협회 회장)



먼저 YWCA 문화이야기를 풀어가자면 다음과 같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소개한다.

우리나라에 덴마크 신제조 도입을 목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체육학과를 지망한 나는 1953년 부산에서 서울로 환도하였다. 때마침 우연한 인연으로 1주일에 한 번씩 'Boys Town' (6·25 한국전쟁 당시 전쟁고아 집합숙소로, 제주도에서 난지도로 이주시킴)을 찾아가 고아 어린이들과 그룹 놀이를 하면서 부모 잃은 아픔을 위로하며 협동심을 길러주는 프로그램을 가졌었다. 이런 시기에 당시 한국YWCA 부회장이셨고 한국 걸스카우트 초대 총재이셨던 김신실 선생님이 이화여자대학교 체육학과 과장으로 재직하고 계셨는데, 나에게 YWCA Y-Teen 클럽 활동지도와 Y대학생 모임 그리고 하령회, 간사 연수회, 걸스카우트 훈련 및 캠프에 도움이 필요하다하여, 그때부터 다양한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당시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으로 인해 국민들의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환경적 생활이 매우 피폐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우리들의 생활환경에서 놀이라고는 웃놀이, 화투치기, 줄넘기, 제기차기, 널뛰기, 연날리기 정도가 놀이의 전부였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었다.

YWCA는 창립 당시부터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여성 지도자 훈련, 사회개발 운동, 사회정화 운동, 그리고 교인확보를 위한 운동을 펼쳤는데, 이를 위한 주된 방법은 예배와 부흥회, 지도자 연수프로그램이 주였다고 본다. YWCA는 1946년 미국에서 박에스터 총무님을 한국YWCA에 모시면서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다. 박에스터 총무님은 YWCA 발전을 위하여 '지·덕·체' 삼위일체의 정신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김신실 부회장과 박에스터 총무님의 요

청으로 나는 1957년 3월 2일 부터 한국YWCA 프로그램 보조 간사로 일하게 되었다. YWCA정신 '지·덕·체' 삼위일체에서 건전한 정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중, '체'와 관련한 활동들이 매우 약하다 하여 이를 강화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놀이문화를 개발하고 소개하였다. Y-Teen 활동, 대학생 하령회, 수련회, 전국여성대회, 캠프 등 뿐만 아니라, 지방YWCA 7개 지부(조치원, 대전, 대구, 부산, 군산, 광주, 목포)를 돌면서 「건전가정 육성을 위한 건전놀이」 강습을 15일 간씩 특강과 실습을 하며 2년 간 여러 가지 놀이문화를 소개하였다. 여기에 도움이 되는 캠프 노래 책자 및 레크레이션 자료집 등을 내기도 하였다. 또한 1959년에는 호주YWCA 지원으로, 멜버른 대학에서 두 학기를 수학과 호주YWCA와 뉴질랜드YWCA에서 동양의 여러 가지 놀이(Game of the Orient)를 그룹 모임에서 소개하기도 하였다.

1960년대 들어서서 서울YWCA에서 사회체육과 레크레이션 교육을 가르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당시 서울YWCA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여성을 위한 사회체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훈련시키려는 목적으로 강당을 만들고자 하였다. 이에 문교부 체육국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5년 간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이때 강당에서 마음껏 체육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마루 바닥을 미8군의 도움을 받아 깔았다.


서울YWCA에서 새롭게 보건체육부를 만들어 회원들과 활동하게 되었다. 다시 명동에는 오늘날과 달리 위락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청소년과 성인들의 놀이마당이 전무하였다. 이에 YWCA는 Y-Teen을 위한 박수놀이, 짝짓기, 공 뺏기 등 놀이를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또한 60년대 초에는 주로 레크레이션 지도자 양성 훈련을 하였는데, 캐나다 레크레이션협회 간

부인 Earl Buckley씨를 초청하여 YWCA, YWCA 간사, 학교 선생을 뽑아 레크레이션 훈련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대한적십자사 봉사 회원들의 레크레이션 지도방법 프로그램 훈련, 각 대학생 지도자 훈련을 여러 번 하였고, 이와 더불어 한국무용반(이대 유인희 교수 지도), 현대무용반(이대 육완순 교수 지도), 발레반(이대 홍정희 교수 지도)을 운영하였다. 또한 일반 성인들을 위해 매주 금요일마다 '민속춤의 밤'을 운영하여 (몇몇 이사님들의 반대가 있기도 하였으나 양해를 받아) 사교춤반도 개설하여 음성적 유희에 빠지지 않게 공개적으로 사교춤을 지도하는 프로그램이 이어갔다. 이외에도 파병장병가족을 위한 위로놀이 마당을 벌였으며, 가족계획 사업이 강조된 60년대 사회적 분위기에 맞게 한 자녀를 가진 부모초청 프로그램도 여러 번 가졌다. 또한 아시아게임에 출전하는 선수를 초청하여 외국선수와의 교류, 양식 식사 매너 훈련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여성유도반, 펜싱반, 트램폴린반(특히 수영, 다이빙 선수를 훈련)도 운영하였고 1963년에 본인이 일본에서 양궁을 배워와서 고등학교 선생을 훈련시켜 보급한 것이, 오늘날 한국 양궁이 세계를 제패할 정도로 발전하였다. YWCA는 사회체육과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보급 외에도 새로운 문화를 만들기도 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이 크리스마스 축제라 할 수 있겠다. 크리스마스 축제를 가족잔치로 만들어, 가족과 함께 놀이마당을 가져 YWCA강당과 마당에서 즐거운 놀이를 하였다. 또 한편으로는 매주 토요일 오후에 서울YWCA 마당에서 당시 미8군에서 수고하시는 전석화 지도자를 모시고 기타를 치면서 노래마당을 마련하여 직장인이나 가족, 대학생, 청소년 누구든지 노래 부르기에 동참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오랫동안 지속하였다. 이 모임의 연장으로 문화부(현재의 문화관광부)의 허락을 받아 덕수궁 내에서 노래 부르기 행사를 여러 번 개최하였던 것이 오늘날의 '열린음악회'의 시초가 아닌가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 복지과와 함께 각 대학 체육학과 학생을 주말에 동원하여 서울의 각 지역 공원의 놀이기구에서 어린이들이 제대로 놀 수 있도록 지도하거나 같이 놀아주는 기회를 가져 학생들은 실습을 통해 체협 교습의 기회를 가졌고, 어린이들은 안전하게 노는 법을 배우게 하였다. 또 한편으로는 유치원 선생들을 위한 어린이 놀이영법 훈련 등 기업체 레크레이션 지도자 훈련도 가졌었다.

1970년 초에 들어와서 서울YWCA 구내식당을 개조하여 저

녁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소극장형의 낮은 무대를 마련하였다. 기본적으로 음악 프로그램에 필요한 피아노와 기타를 갖춰놓고 주로 대학생과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청개구리방'을 마련하였다.

'청개구리방' 운영을 위해 먼저 일요일을 제외한 6일 간의 저녁 시간 봉사하는 직원을 정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월요일에는 주로 클래식, 재즈음악, 팝송, 가요를 듣거나 같이 노래 부르기를 하였고 화요일은 드라마나 영화를 상영하였다. 금요일은 젊은이들이 만나고 싶은 유명인사(예 강원용 목사, 김복선 여성의원, 청담스님...)를 만나는 시간을 가졌으며 토요일에는 여러 나라의 민속춤이나 가벼운 몸놀이를 소개하였다. 이때 열심히 봉사했던 대학생 가수는 양희은, 서유석, 이종용, 김고향, 장님이었던 이윤식, 이미 대학교에서 널리 알려졌던 윤형주, 송창식, 김민기, 임문일, 김문수, 방의경 등이 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청개구리를 방문하여 대학생과 청소년을 위해 노래를 가르치거나 같이 노래를 부르면서, 서로 소통하며 즐거운 시간을 만들었다. 이로써 YWCA 청개구리 사업은 학교 이외에 마땅히 즐길 기회와 공간이 없는 청소년들에게 정서적, 육체적 건강을 증진하고 자신의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었다고 본다. YWCA는 놀이마당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선도와 사회정화운동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국YWCA는 건강한 문화 활동에 대한 개념이 생기기도 전에 이미 사회에 앞서 '문화'를 창조해왔다. 이는 '지·덕·체'가 조화로운 인간상을 지향하며,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몸으로 우리 사회에 새로운 물결을 만들어가는 YWCA로써는 어쩌면 당연한 사명인지도 모른다. YWCA가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 활동을 개발하고 보급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창조적 역할을 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 



● YWCA청개구리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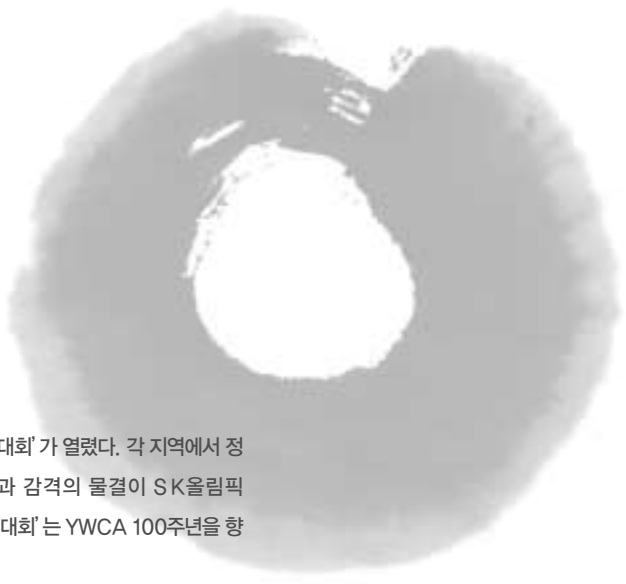
한국YWCA 90주년 전국회원대회

YWCA 회원이 이루는 정의와 평화 세상

2012년 8월 18일 토요일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한국YWCA 90주년 전국회원대회'가 열렸다. 각 지역에서 정의, 평화, 생명의 가치를 일구어 온 전국의 회원들이 한 자리에서 만나는 기쁨과 감격의 물결이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을 뒤덮었다. 약 4,500여 명이 모인 이번 '한국YWCA 90주년 전국회원대회'는 YWCA 100주년을 향한 비전과 꿈을 회원들과 함께 나누는 장이었기에 더욱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11시 30분, 천태혁 밴드의 찬양으로 전국 각지에서 모인 회원들이 축복과 기쁨으로 서로를 환영하였다. 이어 12시부터 '제 16회 YWCA가 뽑은 좋은 TV 프로그램 상' 시상식이 있었다. MBC이성배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수상작인 대상(MBC 휴먼다큐 사랑), 여성(KBS 복희누나), 평화(ubc 침묵의 원전), 청년·청소년(SBS 기적의 하모니) 부문 우수상과 특별상(JTV 종일씨의 행복의 나라로)은 YWCA가 추구하는 정의, 평화와 생명 살림에 대한 가치를 잘 녹여낸 것으로 Y 회원 2,500명이 직접 뽑은 것으로 특별한 의미를 가진 작품이었다. 좋은 TV 프로그램 상 시상식을 마치고 김숙자 서울Y 이사장이 이끄는 공동체놀이가 진행되었다. YWCA 회원들은 에어로빅 팀과 함께 흥겨운 리듬에 맞추어 공동체 체조를 하였

다. 회원들의 움직임들은 기쁨과 감격의 만남에 역동성을 더해 주었다. 오후 1시가 되어 차경애 연합회 회장이 개회사를 통해 '오늘은 YWCA 회원들이 시대적 사명을 선포하는 자리로 앞으로의 100주년도 회원들이 만들어갈 것'이라 격려하며 전국회원대회의 막을 열었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은 축사를 통하여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는 길을 걸어온 YWCA가 앞으로도 여성들의 감성과 지혜, 그리고 YWCA의 전통으로 100주년을 향한 비전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였다. 개회식에 이어 개회예배가 있었다. '우리를 돌보시는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이천진 목사가 말씀을 전하였고 테너 문제성, 이민호 선생이 성가를 불러 예배의 깊이를 더하여 주었다.



YWCA는 90년의 역사를 통하여 그 시대와 사회가 요청하는 많은 일들을 이루어냈는데, 이는 YWCA 목적을 우리 사회에 이루기 위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날, 전국회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분들의 정신과 노고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다. YWCA대상(정희경 연합회 명예연합위원), 문태임상(배영자 대구Y 증경회장), 박에스터상(김경천 광주Y 전 사무총장, 이해경 목포Y 전 사무총장)에 대한 시상과 봉사상, 근속상 그리고 돌보미상에 대한 시상이 있었다. 특히, 60년간 Y자원지도자로 활동한 60년 봉사상(조규혜 광주Y 증경회장)도 배출되어 많은 축하를 받았다. YWCA에서 헌신해 온 총 570명의 수상자들은 수상의 기쁨을 자리에 모인 모든 회원들과 함께 나누었다. 이제 행사가 점점 무르익어, 90주년 코디네이터 고상준 선생이 이끄는 'YWCA 90to100 프로젝트 발대식'에 이르렀다. YWCA는 100주년을 향해 가는 앞으로 10년간 YWCA 청·춘·여·찬 비전 선언을 구체화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이행한다. 회원들이 다 같이 모인 이 자리에서 비전 프로젝트의 시작을 선언하였다. '생명나무'는 어린이들이 나무 심기를 통하여 생명 살림에 대한 인식과 감각을 키워나가는 활동으로, 어린이 Y 회원들이 나와 생명나무를 꾸몄다. The SUP(Self Upgrade Project)은 자기계발프로젝트로 Y의 분야별 전문가 멘토가 되어 멘티를 여성전문인으로 키우는 것이다. 30명의 The SUP 프로젝트 참가자들은 앞으로의 여정을 격려하며 서로에게 배지를 달아주었다. 'The 대추'는 대잇기 추진단으로, 2대 이상 YWCA 활동을 이어온 가족을 발굴하고, 대를 이어 YWCA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가족을 키워가는 프로젝트다. 이날 약 80팀의 '대추' 팀이 나와 새하얀 천에 손도장을 찍어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으로 남겼다. YWCA 평화의 해인 올해, 한국사회의 평화물결을 염원하며 YWCA 평화순례가 이루어졌다. 지난 4월부터 광주Y, 중부지역Y, 서울Y, 강릉Y가 평화걷기대회를 열어 지역에서 평화인식을 확산시켰다. 이날 평화순례 참가자들이 "YWCA는 '다르다'는 이유로 가하는 모든 종류의 차별, 억압, 불평등이 없는 사회를 위해 노력합니다", "YWCA는 평화를 만드는 힘입니다"가 적힌 평화순례 현수막을 들고 회원들이 모인 장내를 한 바퀴 돌며 메시지를 전하였다. 90주년을 맞이한 YWCA는 감독으로부터 배우까지 모두의 재능기부로 만들어진 영화 <사랑을 말

하다>를 제작하였다. Y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100주년까지, YWCA 100년의 역사에서 견지해 온 '핵심가치'를 영화와 연극에 담아 YWCA 역사와 정신을 문화적 콘텐츠로 구성하려고 한다. 이날에는 영화<사랑을 말하다>를 만든 전화성 감독이 나와 영화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YWCA 정신을 담은 영화를 계속 만들어 나갈 뜻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청년·청소년 세대가 통일을 준비하는 '통일리더십아카데미'에서는 YWCA 청소년 회원들이 단심대놀이를 펼쳤다. 청소년들이 한 마음으로 색색의 끈을 엮어가면서 평화에 대한 염원을 몸으로 표현하였다. 청소년들이 화합하며 조화를 이루는 몸짓이 보는 이들의 가슴을 평화세상에 대한 설렘으로 물들였다. 프로젝트 발대식에 이어 '한국YWCA 100년을 향한 청·춘·여·찬 비전 선포'를 하였다. 이로써 YWCA는 '나눔과 섬김', '살림의 실천'을 통해 정의, 평화, 생명의 사회를 이루어 나갈 것을 세상에 천명하였다.

90년의 역사를 이어온 한국Y 회원을 축하하고 100년을 향한 출발점에서 있는 Y를 응원하기 위해 팡페라테너 임형주의 음악회가 이어졌다. 서정적이지만 청중을 압도하는 파워풀한 음색으로 듣는 이들의 열정을 끌어내주었다. 이어 천태혁 밴드의 찬양으로 회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과 감격에 사로잡혔다. 파송의 시간 '세상의 빛이 되어라'에서, 차경애 회장, 김형, 신희은 부회장이 '정의, 평화, 생명'의 촛불을 밝히며 YWCA 회원의 사명을 일깨워 주었다. "...Y가 100년이 되면 저는 열아홉살이 되니까 그때도 이 자리에 오겠습니다. 이 자리에 와서 모든 분들을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제가 앞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좋은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100년이 되는 날 같이 만나면 좋겠습니다..." 행사의 마무리에 김명준 어린이 회원이 우리에게 전해준 메시지다.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 YWCA 회원들이 함께 만들어 갈 세상이다. 이렇게 '한국YWCA 90주년 전국회원대회'는 끝이 났다. 하지만 YWCA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한 자리에 모인 YWCA 회원들은 다시 흩어져 자신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YWCA 100년을 향한 꿈과 비전을 만들어 나간다. YWCA 회원들이 서 있는 바로 그곳이 YWCA 역사의 현장이다.





90th ANNIVERSARY

한국YWCA 90주년 전국회원대회



- 1 90주년 전국회원대회 개최식
- 2 회원Y 기입장
- 3 파송의 시간 _ 세상의 빛이 되어라
- 4 공동체놀이
- 5 차경애 회장,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 6 제16회 좋은 TV 프로그램 상 시상식
- 7 YWCA 시상식
- 8 임형주의 작은 음악회
- 9 천태력밴드 찬양
- 10 YWCA 100주년 비전선포
- 11 청소년 회원 단심대놀이



한국YWCA 90주년 청소년전국회원대회

글 | 홍진영(세종YWCA 간사)

2012년 8월 17일, Y의 작은 여성리더들인 Y-틴 중앙임원들의 따뜻한 인사와 늘 정겨운 Y-틴 실무자 선생님들의 얼굴을 마주하며 반갑게 행사장으로 들어섰다. 여는 의식과 함께 시작된 한국YWCA 90주년 청소년전국회원대회.

이전 청소년전국회원대회와는 달리, 다양한 얼굴색과 연령층으로 구성된 다문화 청소년들이 함께 참여하여 모두가 처음에는 어색했다. 하지만 어색함도 잠시 우리 모두의 큰 환호를 받으면서 공감대 형성을 하게 했던 밸런트 '여진구'의 등장으로 열기가 한층 뜨거워졌다. 사춘기 남학생의 굽직함 목소리와 바른 말투, 잘생긴 외모로 모든 참가자들의 눈과 귀를 행복하게 해주었다. 무엇보다 대학Y 진행자들의 생동감 넘치는 사회로 인해 더욱 빛이 났던 무대였다.

'평화마을워크숍'은 연령대가 비슷한 조별로 나뉘어져서 진행되었다. 2012년 Y-틴의 큰 주제가 '평화'였기 때문에 각 지역의 Y-틴에서 진행되고 있는 평화의 이야기들이 우리 Y-틴들에게는 그다지 생소하지 않았고, 평화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과 표현들을 자유롭게 어렵지 않게 이야기하고 나

누는 모습에 역시 'Y다운 리더'들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뿌듯한 시간이었다. 또한 다래교실과 Y-틴이 나이별로 함께 어우러져 동생들을 챙기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모습들이 인상적이었다. 머리, 마음, 몸 등 성장기 아이들의 감수성을 자극하는 다양한 놀이들을 곁들인 워크숍을 통해서 아이들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다. 특히 다음 날 전국회원대회를 위해 몸짓으로 준비하는 평화 플래시몹은 활동성 있는 청소년들의 기질에 맞는 협동 프로그램이었다. 18일에 진행된 전국회원대회 비전선포식 때 아이들이 장식했던 플래시몹은 짧은 시간동안 하나의 예술행위가 되어 전국회원대회에 흥겨운 장면을 연출해 주었다.

저녁시간을 장식한 평화콘서트는 평화를 주제로 각양각색의 재능을 가진 우리 Y-틴들이 준비한 콘서트 현장이었다. Y가 키운 자랑스러운 댄서들 'DNC'를 비롯하여 멋진 '벌떼' 밴드의 공연들과, 뒤이은 힙합 찬양팀 히스팝! 그 열기는 정말 대단했다. 아이들이 다함께 즐기는 모습이 하루 동안 진행된 평화의 워크숍의 클라이막스로 이끌었던 시간이었다.



전국회원대회가 진행되고 있을 때, Y-틴 한 명이 "지금이 90주년이면 10년 뒤에는 100주년행사도 하겠네요? 그때도 저 올래요! 저도 데려가 주세요!"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나는 "당연하지 그때는 네 나이가 30살이니까 Y-틴 선배로서 100주년 기념행사 때 참여할 수 있어."라고 말해 주었다. 마음으로 느끼고 몸으로 체험하며 평화에 대한 감수성을 일깨워 주었던 청소년전국회원대회. 이 시간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하여 YWCA 100주년에 하나님이 Y-틴을 통해서 이루실 많은 일들을 기대하게 된다. 앞으로 10년 후 YWCA의 리더십을 입고 자라난 우리 Y-틴들이 사회, 경제, 정치, 교육 등 각 분야에서 평화운동가들이 되어 선한 영향력을 펼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그 날을 기대하며 기도해 본다.

청소년전국회원대회를 참가하고 나서

● 신보미(청주Y-틴)

이번 청소년전국회원대회가 있기 전까지 나는 Y 안에서 사춘기를 겪고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를 따라 Y를 다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내 가치 자체를 맡겨도 될 만한 곳인지 고민하게 됐다. 그러나 이번 청소년전국대회에서 평화에 대해 고민하는 내 또래의 청소년들을 보며 그런 고민들을 매듭지었다. 저마다 서로를 의지하며 활동하는 모습이 한없이 유려하게만 보였다. Y는 나에게 선한 영향력 안에서의 자유로움을 주었다. 내가 시대에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었고 세상에서 방향하지 않도록 해 주었다. 사람이 살기도 힘든 90년을 한국YWCA는 시대에 바로서서 살아왔다.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선물과 같은 공동체다. 이번 전국청소년회원대회는 나의 열정을 가득 채우는 계기가 되었다. 이 아름다운 공동체에 내 비전을 바치며 우리 세대를 통해 더 큰 기적이 이뤄지길 기도한다.

● 최성령(거제Y-틴)

고3인 나는 90주년을 맞이한 YWCA와 함께하고 싶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로 전국청소년회원대회에 참가하게 되었다. 친구들은 공부할 시간에 무슨 자원봉사냐며 핀잔을 주기도 했지만 나에게 Y란 세상 속에서 나아했던 나를 도전과 용기로 채워준, 너무나 고마운 존재이기에 그 순간을 함께하고 싶었다. 사진 촬영을 맡아 여기저기 둘러보던 나는, 전국에서 모인 다양한 아이들과 저렇게 하나가 되어 활동하는 것 자체가 평화라고 생각했다. 이번 청소년전국회원대회에서 하나님의 크신 돌봄을 느꼈으며,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는 우리 사회에서 장차 평화의 일꾼이 될 우리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앞으로의 국제평화에까지 관심을 가지고 활동무대로 삼는 Y-틴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귀한 경험을 만들어준 Y에 감사드린다.

● 서성은(부산Y 다래교실 중등반)

YWCA 90주년을 맞아 서울에 갔다. 서울올림픽공원에 도착해서 여진구를 만났다. 다음에는 '평화'를 주제로 다른 지역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림그리기, 노래배우고 게임하기, '의사소통의 중요성'으로 연극보고 게임을 했다. 다래교실 친구들과 함께 서울에 가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색다른 경험이었고, 유명인들이 많이 와서 신기하기도 했다. 두 번째 날에는 어른들도 함께 참석하셨다. 어른들의 시상식 중에 60년 봉사상도 있었는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서 존경스럽게 느껴졌다. 평소에는 생각해보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했던 '평화'에 대한 생각도 해보고 느끼는 시간이었다.

● 오향미(부산Y 새터민지원센터)

다래교실에 참가하게 되면서 수업도 종종 빠지고 선생님 볼 면목이 없어 이번에 서울에서 한다는 회원대회에 가야할지 고민이 되었다. 그러나 아침부터 모닝콜까지 해주시는 선생님의 모습을 보며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회원대회라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게 부담스러웠지만 이런 점이 좋아서 참가하게 되었다. 서울에 있는 큰 올림픽 경기장에 들어가니 이렇게 큰 곳에서 내가 어찌 준비한 것들을 공연하는구나 하고 한편 겁이 났다. 그런데 옆에 같이 준비했던 대학생 친구들이 있기에 용기를 내었다. 회원대회에는 예상했던 것보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람들이 모였다. '아, 이제 피할 수 없겠구나!'하고 생각하며 그냥 몸이 가는대로, 불안했던 마음도 움직였다. 공연이 끝나고는 내가 어떻게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진이 빠졌다. 그래도 이런 우리의 모습이 여기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었다고 생각하니 또한 기뻐다.



YWCA 돌봄사회적기업 현황 분석

정리 | 돌봄조직연구TF팀

연합회 돌봄조직연구TF팀에서는 지난 5월, YWCA의 운동 방향에 맞는 <돌봄과 살림> 조직구조로서의 가능성과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해 회원YWCA가 운영하고 있는 돌봄(사회서비스 제공) 분야 사회적기업의 현황을 조사, 분석해 보았다. 분석 자료는 사업보고서(2011)와 돌봄과살림 담당실무자 워크숍(2012. 4. 3)시 취합한 설문지를 기본으로 하였다. 분석 대상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돌봄 분야 사회적기업 9개소였다. 인증시 주된 사업 분야는 보육 5개, 간병·가사지원 3개, 기타 1개소였다. 인증유형(사회적목적 실현유형)은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이 주된 목적인 일자리 제공형이 5개소,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 혼합형이 3개소,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사회서비스 제공형이 1개소였다. 조직의 형태는 법인 내 사업단형태가 6개소, 비영리사단법인 신규설립이 2개소, 영리법인(주식회사) 신규설립이 1개소로 나타났다.

주된 사업내용은 표1과 같다.

운영 현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분석대상 사업체 대부분이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을 기반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는 단계로 진행되었으며, 기존에 해오던 돌봄사업들을 좀더 전문화하고, 취약계층에게 안정된 일자리 제공과 지역사회에 돌봄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함과 아울러 수익 창출을 기대하며 사회적기업의 형태로 전환하는 의미가 강했다. 우선 유급고용인원은 2008년 288명, 2009년 380명, 2010년 312명, 2011년 231명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는 정부의 인건비 지원이 2011년과 2012년에 걸쳐 거의 종료됨에 따라 고용 인원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는 점점 심화되고 있다. 취약계층 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총 고용인원 231명 중 취약계층 고용인원이 147명으로 63%를 차지하고 있다. 사업

표1 회원YWCA 사회적기업 주요업종 및 부가서비스 및 개발 사업

사회적기업 상호	주업종	부가서비스, 사업 개발
대구Y 간병단	간병사업	고급간병인 양성
제주Y 다인	보육(아이돌보미)	천연비누 제작 판매
여수Y 민들레마을(주)	간병, 음식, 베이커리, 카페	기업체 구내식당 위탁 등
포항Y 육아전문지원센터	아이돌보미, 결혼이민여성 영어시터, 저소득층 밀반찬 서비스, 시설아동 방과후 교육, 장애인프로그램	육아 토탈전문서비스영역 확대
목포Y 희망지원센터	가사보육서비스, 양재·홈패션, 친환경매장	천연조미료 등 아이템 개발, 분부건물1층 북카페, 양재실, 반찬조리실 개설 예정
김해Y 여성인력개발센터(사)여성과 희망	보육(워킹맘 베이비시터)	비즈니스 모델 발굴, 베이비카페, 카페테리아 운영
부산Y 해운대여성인력개발센터 에듀천사	보육(방과후 재가파견 보육교사)	생활리더십 전문가 프로그램, 산모바우처 도우미교육 및 파견
광주Y 드림힐퍼	간병 및 가사서비스, 베이비시터 파견	생명살림터 - 유기농산물 매장
마산Y 여성인력개발센터(사)함께하는여성	3세 이상 영, 유아 보육서비스	장난감, 동화책 대여, 베이비카페 운영

체별로는 고용비율이 90%를 넘는 곳이 2개소, 90~50%가 4개소, 가장 낮은 곳도 24%를 차지하고 있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이라는 사회적 목적은 충분히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자의 연령대는 40~54세가 55.4%로 가장 많고, 55세 이상이 33.8%, 39세 이하가 10.8%로 준고령 및 고령자들의 취업 창구역할을 해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사업체의 수입구조 및 경영성과를 간단히 살펴보면, 사회적기업 인증 초기에는 정부의 지원으로 당기순이익이 일정 부분 보장되었으나 지원금이 줄어들고 종료되면서 발생하는 적자를 초기 적립금으로 대처하는 곳이 대부분이었다. 실제로 매출액 대비 총지출이 8배에 달하는 경우도 있어 서비스 판매로 지속가능한 수익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함을 알 수 있다. 돌봄 분야의 사업이 노동집약적인데다 시장가격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본 서비스 상품으로 부가가치를 발생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은 익히 알려진 바이다. 총수입(매출액+정부지원, 기업후원, 기부금 등) 대비 노무비의 현황을 보면 60.3%~162.8%의 분포를 가지며, 평균은 74.1%로 대인서비스인 돌봄노동의 노동집약적 특성으로 노무비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종사자들이 창출하는 전체 매출액 대비 노무비는 355.2%가 가장 높았고, 200% 이상 되는 곳도 2곳이나 되었으며, 순수매출로 노무비가 충당되는 곳은 단 2곳에 불과했다. 종사자 1인당 매출 대비 월평균 임금은 2곳만이 매출이 임금을 약간 상회하였고, 대부분이 매출보다 임금이 높았으며, 임금이 매출 대비 2배가 되는 곳도 있었다.

매출액의 구성은 민간시장에서의 매출이 대부분이었고, 바우처 사업 등 공공시장에서의 매출은 평균 17%였으며, 공공시장 매출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은 업체도 6곳으로 주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정부의 각종 정책으로 공공 보육 시장 확보가 가장 어려움을 알 수 있다.

초기 정부의 지원으로 확보할 수 있었던 여유자금은 퇴직금, 4대보험 등 인건비 보충, 다양한 직무 및 인성교육, 종사자 복지와의 연대, 취약계층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비용으로 주로 사용되었으며, 지원종료 후에는 부족한 노무비, 운영비, 취약계

층 사회서비스 제공 등에 드는 비용을 적립금에서 충당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신규사업 개발, 사업공간 마련 등 장기적인 수익창출을 위한 자립기금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각 사업체별로 표1과 같이 지역의 욕구에 기반하여 차별화된 부가서비스와 고부가가치상품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전문인력 채용, 판로 개척, 종사자가 취약계층이므로 새로운 기술을 구현하거나 개발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는 등의 한계로 인해 낙관적이지는 않다. 향후 자립 가능성이 있는 사업체는 돌봄서비스 제공 사업 외 음식, 의류 등 제조업을 통한 수익 창출이 가능한 곳이었다. 이를 통해 볼 때 Y의 돌봄사회적기업은 Y가 돌봄사업을 통해 추구해온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목적은 충분히 달성하고 있으나 기업으로서 경영적인 측면에서 흑자구조를 만들어내는 구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이며, 이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기반으로 한 사회서비스제공 사회적기업의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본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Y의 사회적기업과 같이 건강한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며 실천하는 사회적기업이 자생할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사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사회적기업의 수적인 증가에 집중하기보다 현재 설립되어 있는 기업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정적, 인적자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올해 8월부터 사회서비스제공업체 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사회서비스 시장은 더욱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기가 될 것인가 기회가 될 것인가를 잘 판단하고, 정부와 지자체에 비영리부문사업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조성해 주도록 촉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연합회 또한 돌봄사업 분야에서 현재의 사회적기업형 모델의 한계를 보완하고 돌봄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공동체형 사회적협동조합 모델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돌봄이 나누어지는 현장에서 서 주는 자와 받는 자가 모두 행복한 그날을 꿈꾸어본다. 

부천은 지금, 돌봄회원 조직 변화 모색 중!

글 | 송록희(부천YWCA 사무총장)

5월 25일(금) 18:30 Y 돌봄 회원들은 어떤 분들일까? 부천Y 사무총장 취임 전, 가장 궁금하고 만나고 싶었던 분들은 다름 아닌 돌봄 회원들이었다. 마침 한달에 한 번 있는 돌봄 회원 월례회 날이라는 소식을 듣고, 평소 잘 입지도 않는 정장을 차려 입고, 부천Y 사무실에 들어가 맨 뒷자리에 앉았다. 총 회원 62명 중 20여명의 돌봄 회원들이 모여 계셨고, 예배 후 구인회원들의 고발사례를 중심으로 한 실무상의 주의사항 논의가 이어졌다. 유난히 지각생이 많아 이유를 여쭙보니, “교인이 아닌데도 예배를 드리는 게 부담스러워 일부러 예배가 끝날 시간에 맞춰서 온다”고 한다. “6월에 우리 부천Y에 오실 새 사무총장입니다” 담당 실무자의 소개로 돌봄 회원들에게 인사를 하는데, 낯선 이에 대한 경계의 눈빛이 역력히 느껴진다. 웃음기 없는 얼굴, 움추린 어깨, 서로가 서로를 낮설어하는 모습... 부천Y 돌봄 회원에 대한 나의 첫인상은 이것이었다.

6월 1일(금) 본격적인 업무 시작! 첫 출근과 동시에 맞닥뜨린 업무는 부천Y의 돌봄 사업을 재조직하는 일이었다. 이유는 한국YWCA가 지난 1966년부터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을 위해 교육과 취업 기회를 제공해 온 돌봄서비스 알선 사업이, 뒤늦게 만들어진 직업안정법상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일부 항목에 저촉되는 상황이 발생되어 돌봄조직 변화를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먼저 실무자들과 함께 부천Y 돌봄 사업 현황과 연합회 자문노무사의 제안을 검토하였다. 결론은 부천Y의 돌봄 사업을 현행체제로 운영하려면, 돌보미 당사자들이 스스로의 문제에 대해 대안모색까지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당사자 운동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첫째, 자치회 구성을 강화하기 위해 돌보미 직종별 각 2명씩의 임원 선출. 둘째, Y회원으로서의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최고의 돌보미 교육 프로그램 마련. 셋째, 돌봄 회원을 포함한 회원들의 CMS 회원가입 권유(선택가능). 넷째, 회원 증모 강화 등이 필요하다 판단하게 되었다.

6월 19일, 임시이사회에서 부천Y 돌봄조직의 구조 변화를 위해 제반의 노력을 다한다는 안건이 만장일치로 결정되었다. 연합회에서 논의 중인 돌봄노동자협동조합(가칭)에 대해서도 장기적 비전을 갖고 준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6월 22일(금) 18:30 돌봄조직 개편 관련 ‘돌봄 회원 비상총회’를 소집했다. 총 44명(총 회원 62명 중)의 돌봄 회원이 참석했다. 신임 사무총장 인사와 함께 YWCA 돌봄 사업의 역사와 의미, 부천Y 돌봄조직 개편에 대해 설명했다. 하필 신임 사무총장 취임 후 첫 번째 월례회의에서 조직개편 등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마음이 무거웠다. 그러나 Y는 단순 직업 알선기관이 아니라, 돌봄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운동하는 기독교민운동단체이며, ‘돌보고’ ‘살리고’ ‘나누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회원들의 실천으로 90년을 이어온 단체임을 말씀드렸다. 그 자랑스런 Y의 중요하고도 당당한 회원이, 바로 돌봄 회원 여러분이다! Y의 생명, 정의, 평화운동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몸으로 ‘살리는 여성’이, 바로 돌봄 회원 여러분이다! 그동안 Y가 여러분을 회원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을 반성하며, 100년을 향해 함께 나가자고 말씀드렸다.

이어서 직종별로 흠어져 모임을 가졌다. 가사, 산모도우미 자치회를 결성하고 총 4명의 임원을 선출했다. 돌보미들이 월례회를 끝내고 나가면서 한 말씀씩 해주신다. “Y가 진작 이랬어야 한다.” “Y가 우리를 인정해주는 기분이 든다.” 그리고 슬그머니 CMS 회원가입서를 내미신다. 44장. 전원가입!!!

이젠 돌봄 회원들과의 약속을 지킬 일이 남았다. 돌봄 회원을 위한 최고의 교육프로그램을 만드는 일! 모범적으로 돌봄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회원Y 실무자들에게 전화로 문의하고, 서울Y를 비롯한 몇몇 회원Y의 돌봄 교육도 참관했다. 많은 고민 끝에 드디어 초라하고 작지만, 우리에게 소중한 ‘부천Y 돌봄 회원을 위한 민들레 강좌’ 가 마련되었다.

7월 27일(금) 18:30 조직개편 이후 첫 번째 월례회- ‘돌봄 회원을 위한 민들레강좌’ 시작! 프로그램 종료 후 설문지를 돌려 만족도를 조사했다. 돌봄 회원 44명 참석! ‘매우 만족’이 99%! 실무자들의 얼굴이 모두 별장게 달아올랐다. 참으로 감사할 따름이다.

부천Y는 이번의 돌봄조직 개편을 통해 단기간에 많은 성과가 나타나리라 기대하지는 않는다. 다만 지친 몸을 이끌고 찾아오는 월 1회 월례모임에서 돌봄회원이 ‘나’를 느끼고, ‘Y’를 느끼고, ‘공동체’를 느끼시기를 바랄 뿐이다. 한국YWCA가 2003년부터 추진해 온 ‘생명사랑공동체’ 운동. 어쩌면 우리는 이 거창한 구호를 실현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고 출발하는 우리의 작고 미약한 이 ‘시작’... 이 ‘시작’을 하나님은 기록해하지 않으실까? 

7월 월례회의를 마치고

글 | 안경옥(부천YWCA 산모도우미)

가만히 있기도 버거운 무더운 칠월의 마지막 금요일. 부천Y의 월례회 날이다. 총장님이 새로 부임해 오시고 우리들의 모임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어떤 특별한 교육일까? 하는 기대 반, 호기심 반으로 또 난생 처음으로 ‘시낭송’이란 걸 하기 위해서 설레고 조금은 긴장된 마음으로 월례회에 참석했다. 월례회 시작을 알리자 전등이 꺼지고 촛불이 켜지면서 잔잔한 음악이 깔리고 내게 마이크가 주어졌다. 박목월 시인의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또 박도박 조용히 읽어 내려갔다. 아! 시낭송이란 이런거구나. 나도 시낭송이란 걸 해보는구나. 정말 기분이 좋았다. 그리고 행복했다. 이어서 YWCA 돌봄사업에 대해 최순영 이사님께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셨고, 홍은희 강사님께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이란 주제로 울동을 섞어가면서 재미있게 강의를 해 주셨다.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 유치원 아이들처럼 울동도 하고 손뼉도 치고, 엔돌핀이 마구마구 샘솟았다. 나이와 상관없이 교육이란 정말 좋은 것이구나 생각했다. 우리 도우미들이 앞으로 어떤 자세로 어떻게 고객들과 부딪치지 않고 보다 나은 좋은 도우미로 거듭날까, 또 고객에게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사람으로서 기억되길 바라면서... 정말 유익하고 보람된 교육이었다. 앞으로도 더더욱 질 좋은 내용과 좋은 강사진으로 우리 회원들을 행복하게 해주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을 감히 해본다. 부천Y 감사합니다.



‘강남 스타일’에서 배우는 한국YWCA의 문화 지향점



글 | 윤세민(경인여자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언론학박사, 문화평론가)

‘강남 스타일’은 왜 ‘문화’가 되었나?

요즘 대세 중의 대세는 ‘강남 스타일’이다.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는 사이의 ‘강남 스타일’에 매료되어 누구랄 것 없이 ‘강남 스타일’을 흥얼거리면서 절로 어깨와 무릎을 상하로 들썩이며 ‘말춤’을 춘다. 중독성 강한 멜로디, 따라하기 쉬운 신나는 춤, 그리고 모두가 흥에 젖을 수 있는 비트는 남녀노소, 국가, 인종을 넘어 세계인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 더불어 사이의 장기인 ‘코믹 뮤직비디오’는 세계인의 웃음보를 자극시켰다. 대한민국 문화가 이렇게 전 세계를 주도한 적이 있었는가? 비, 소녀시대, 원더걸스 등이 K팝을 대표하며 동남아, 일본, 미국에 진출했다고는 하지만 K팝 마니아층을 중심으로 형성된 인기일 뿐 세계의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는 이런 인기를 끌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강남 스타일’은 달랐다.

소수가 보면 흥행이 되고 다수가 보면 유행이 된다. 더 나아가 다수가 느끼고 함께 따라하면 ‘문화’가 된다. 강남스타일은 ‘흥행’과 ‘유행’을 뛰어넘어 세계인이 함께하는 ‘문화’가 되었다. 다수가 가슴으로 뭉클하게 느끼며 종내는 함께 따라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문화다. 그렇다면 사이의 ‘강남 스타일’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의 문화가 된 건 왜일까?

첫째, 창조성이다. 10년 전, 사이가 한국 대중문화에 등장하였을 때도 그는 범상치 않은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엽기’라는 신조어와 함께 한국을 뒤흔들며 ‘사이식’의 대중문화를 창조해냈다. 그랬던 사이는 여전히 그때와 비슷한 모습이다. 뚱뚱하면서도 별 볼일 없는 대한민국 평균 이하의 보통 남자... 그렇지만 그는 매번 신선하면서도 재미있는 노래와 춤, 뮤직비디오를 만들어내며 늘 새로운 시도를 하였

다. 그것이 사이의 독특한 창조성이고, 그것이 쌓이고 쌓여 오늘날 세계를 뒤흔드는 창조적 문화의 아이콘이 되었다.

둘째, 비판성이다. ‘강남 스타일’은 그 가사에서 보듯 ‘강남’을, 그런 ‘강남’을 싸고 돌며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문화’를 은유적으로 비꼬고 있다. 살짝, 아니 매섭게 비틀고 있다. 그것이야말로 노래 속에 담긴 비판성이다. 흔히들 사이의 ‘강남 스타일’을 ‘B급 문화’나 ‘키치(Kitsch: 질 낮고 저속한 하나의 문화현상) 문화’나 하며 폄하하곤 한다. 난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단순히 나타나는 단면, 현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강남 스타일’의 깊은 내면에는, 비정상상을 정상으로 바로잡고 싶어하는 ‘건강한 비판성’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친숙성이다. ‘강남 스타일’은 들으면 절로 흥겹고, 보면 따라하고 싶게 만드는 ‘중독성’이 있다. 그것이 ‘친숙성’이다. 사이는 늘씬하지도 조각 미남도 아니다. 오히려 뚱뚱한 편이고 못 생긴 편에 가깝다, 그의 음악이 그렇고, 그의 뮤직비디오가 그렇다. 그런데도 대중은 거기에 친숙하고 거기에 열광한다. 그가 멀리 있는 ‘강남’을 노래하는데도 그 속에서 오히려 ‘강북’을 발견하고, 유명 연예 스타임에도 그저 나랑 함께 할 수 있는 ‘이웃’이자 ‘동지’로 느끼기 때문이다. 그것이 사이의 ‘친숙성’이다.

넷째, 공유성이다. 위에서 얘기했듯, 중독성 강한 멜로디, 따라하기 쉬운 신나는 춤, 그리고 모두가 흥에 젖을 수 있는 비트는 남녀노소, 국가, 인종을 넘어 세계인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 그런 탓에 ‘강남 스타일’은 단 52일만에 유튜브 조회수 1억을 돌파하며 최단시간 내 세계 최초 1억 뷰라는 세계신기록을 세웠다. SNS로 대표되는 디지털 기술과 문명이 공헌한 바가 크다. 그만큼 최신의 트렌드와 문화와 문명을 읽

어내고, 그에 맞는 ‘강남 스타일’만의 홍보와 전략이었던 셈이다. 이것이 세계를 아우르는 공유성으로 귀결된 것이다.

한국YWCA의 문화 지향점을 생각해본다

YWCA는 내겐 참 친숙한 여성공동체다. 대학 시절, 암울할 때 명동의 서울Y와 연합회는 내게 민주 의식과 애국심을, 또 청년문화를 일깨워주던 소중한 공간이었다. 이후 기자로 활동할 때는 내 출입처이기도 했던지라, 그곳에서 아름답고 훌륭한 지인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다. 당시 홍보위원으로 많은 가르침을 주셨던 분이 바로 현재의 차경애 한국YWCA연합회 회장일 정도로... 그만큼 YWCA는 내게 소중하고 친숙한 단체다. 그런 YWCA가 올해로 90주년을 맞고 새롭게 100년을 준비한다고 한다. 한국YWCA연합회는 1922년 창립 초기부터 지금까지 여성이 바로 서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힘써 왔다. 여성의 직업훈련과 능력개발, 여성 지도력 모델 발굴과 시상,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복지시설 운영, 사회적 일자리 창출,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 경제금융교육, 폭력피해여성에 대한 치유와 예방, 결혼이민여성과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사회적응과 직종개발, 안전한 먹거리 문화 확산 캠페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펼쳐 왔다.

최근에는 우리 사회에 문화와 미디어의 중요성과 건강한 가치를 지향한다는 문화운동 차원에서 ‘YWCA가 뽑은 좋은 TV 프로그램 상’을 제정하고 올해로 16회째를 마쳤고, 또 지난 9월 13일엔 YWCA 90주년 영화 ‘사랑을 말하다’ 시사회를 갖고 시민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사회의 문화 현상과 트렌드 속에서, YWCA 문화는 무엇이고 어떠한지, 또 YWCA가 도전해야 할 문화 지향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그 해답을 나는 위에서 언급한 사이의 ‘강남 스타일’에서 찾기로 하였다.

첫째, 창조성이다. 한국Y는 지난 90년 동안 여성을 중심으로 한 사회운동, 환경운동, 문화운동, 기독교운동 등을 펼쳐 왔다. 그 자체로 훌륭한 역사요 전통이었다. 그러나 그런 운동들이 말 그대로 역사와 전통에 머물러 있어선 안된다. 시대와 문화의 흐름을 제대로 읽어내며, 그에 합당한 또 어떤 때는 리더할 만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창조성’에서 출발한다. 한국Y의 역사와 전통에 기반하되, 늘 새로운 방향과 역동성을 강조하는 그런 창조성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비판성이다. 한국Y는 지난 90년 동안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를 물어왔다. 그것은 때론 독립으로, 때론 민주화로, 때론 양성평등으로, 때론 평화와 생명으로 귀결되어 왔다. 참 소중한 물음이었고, 그만큼 소중한 결과를 이끌어왔다. 그것이 바로 비판성이다. 이제 한국Y는 우리 사회에 대해, 우리 민족에 대해, 우리 여성에 대해 새롭게 물어야 한다.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소중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힘, 한국Y의 건강한 비판성을 기대해 본다.

셋째, 친숙성이다. 한국Y는 지난 90년 동안 한국 사회와 민족, 특히 한국 여성에게 친숙한 벗이었다. 그런데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한국 사회엔 어느덧 다민족 다문화가정이 보편화되고 있다. 그만큼 새로운 이웃이 많아진 것이다. 한국Y는 그런 새로운 이웃을 품을 만한 넉넉한 친숙성을 갖춰야 한다. 또한 여성공동체지만,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품어내는 넉넉함, 한국 사회의 소외되고 아픈 곳 등 여러 곳을 품을 수 있는 따뜻한 친숙성도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유성이다. 한국Y의 역사와 전통은 그 자체로 소중하며 의미가 깊다. 또 한국Y가 펼쳐 온 운동과 정신 역시 그러하다. 그러나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한국 사회와 민족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공유되지 못한다면 얼마나 아쉽겠는가. ‘강남 스타일’에서 보듯 남녀노소, 국가, 인종을 넘어 세계인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이 필요하다. 한국Y의 운동과 정신과 문화를 이 사회에 널리 알리고 함께 하도록 하는 친숙한 공유성을 필요로 한다. 나아가 디지털 시대와 글로벌 시대에 맞게 디지털 트렌드와 문화를 제대로 읽어내고 세계를 품어안는 글로벌 마인드로서의 공유성도 갖춰야 할 것이다.

지난 8월 9일 한국YWCA 90주년 전국회원대회에서는 100주년을 향한 ‘청·춘·여·찬’ 비전선언문 발표가 있었다. 그 주요 내용은, 늘 새로운(young) 것으로 지속한다는 뜻에서 청(靑), 자연을 포함한 모든 생명을 위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든다는 의미의 춘(春), 돌봄과 포용, 섬김과 살림이라는 뜻의 여(女), 감사와 찬양, 소통의 의미를 가진 찬(讚), 그리고 이 모든 가치를 포괄하며, 젊은 기독교여성들의 시민공동체로서 사명과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것이었다. 그야말로 한국Y의 정신과 문화가 아로새겨진 ‘청·춘·여·찬’으로 여겨진다.

한국YWCA의 ‘청·춘·여·찬’이 사이의 ‘강남 스타일’처럼 우리 사회에 새로운 문화로 정착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제14차 한·일Y청(소)년협의회 한·일 '탈핵과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청년운동가의 역할'

아픔의 과거 미나마타, 평화의 미래 우리의 만남

글 | 김광식(청주YWCA 대학Y)



'우리 탈핵 스타일~!'

2012년 8월 23일 저녁. 신나는 음악과 함께 평화를 위한 외침이, 탈핵을 향한 목소리가 서울 명동거리 한복판에 울려 퍼졌다. 핵 없는 세상을 우리가 만들자는 20여 명의 꽃분홍색 티셔츠를 입은 청소년들의 거리 행진으로 제14차 한·일Y청(소)년협의회는 시작되었다.

일본으로 향하는 비행기 시간을 맞추기 위해 모두들 일찌감치 인천공항으로 서둘렀다. 전날 명동에서의 평화순례 퍼포먼스로, 그리고 더 나은 협의회를 위한 준비로 많이 피곤했을 만도 하건만 해외에 나간다는 설렘 때문인지 아니면 이번 협의회에 대한 큰 기대 때문인지 우리 참가자들 표정은 너무나 밝았다. 가고시마 공항에 도착한 우리는 미바에 미즈코 일본 Y부회장님과 네기시 토모코씨의 환영과 함께 미나마타시의 협의회 장소로 이동했다. 최근 한·일 양국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냉랭해진 국가관계 때문에 일본으로 출발 전 많은 이들이 걱정을 했었다. 그러나 그러한 걱정을 한방에 날려 버리며 일본 참가자들은 우리를 환한 미소와 함께 열렬히 환영해주었다.

얼마 전 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일어난 후쿠오카원전 사고 영상과 설명으로 시작된 협의회 오프닝은 탈핵과 반원전에 대해 다시 한 번 상기시키기에 충분했다. 이어진 국가별

내셔널 리포팅으로 우리의 탈핵에 대한 의지와 열정은 고조되었다. 육하원칙에 의해 정리한 일본의 발표나,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정리한 한국의 발표나 결국 말하고 있는 점은 같았다. 핵은 절대 평화와 양립 할 수 없다는 것. 각 국가의 정부는 지금 당장의 이익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핵을, 원자력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둘째 날 우리는 미나마타시 현장 탐방에 나섰다. 미나마타병이 시작된 화학공장 '킷소' 회사부터 '킷소' 회사가 폐수를 내려 보내던 지금은 매립으로 공원이 되어버린 폐수구, 많은 어선들이 단한 척도 어업을 하지 않고 정박되어 있는 미나마타병이 처음 발생한 이상할 만큼 조용했던 어촌 마을, 그리고 미나마타병의 발생과 피해자들의 보상을 위한 투쟁과정,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을 한 눈에 보여주는 미나마타시립 미나마타병 자료관까지 둘러보았다. 미나마타병이 공장폐수의 메틸수은에 의한 공해병이고 그 피해자들 어떻게 살아왔는


지 어떤 투쟁을 하였는가에 대해서 공감도 되고 이해도 했지만 도대체 이 미나마타병이라는 사건과 우리가 다루는 탈핵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였다. 그러나 오후에 이어진 실제 미나마타병 환자이신 사카모토 시노부씨의 생생한 증언과 미나마타 연구 센터 위원장 하나다 마사노부 교수의 강의를 통해 그 의문은 쉽게 해결되었다. 당장의 이익과 서로의 무관심으로 인해 발생한 점과 미나마타병은 끝난 것이 아닌 현재진행중이라는 점은 우리가 다루고 공부한 핵문제와 너무나도 닮아있었다. 그리고 전날 내셔널 리포트를 마치고 조별 토의 시간에 나온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원전과 핵으로 인한 피해가 생겨남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못하는 것은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우리의 탈핵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협의회를 위한 일회성이 아닌 꾸준함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일본 참가자 시오리의 의견이 떠올랐다.

현장 탐방 후 문화교류 시간, 우리는 한국의 문화를 조금이나마 소개하고자 한류열풍의 주역인 K-POP에 맞춰 탈을 쓰고 한삼을 낀 채 전통탈춤을 가미한 4분가량의 짙막한 댄스 공연을 선보였다. 그리 완벽하지도 않은 공연에 진심으로 호응해주고 그리 대단하지 않은 탈과 한삼 선물에 기뻐하며 같이 춤을 배우려는 일본 참가자들의 모습에 진심이 서로의 마음에 전해짐을 느꼈다. 마침 이날이 일년에 한 번 있는 마을축제, '마즈리'가 진행되는 날이라 하여 일본 참가자들은 우리를 안내하며 마즈리 장소로 향했다. 큰 규모는 아니었지만 마을사람 모두가 나와 서로의 공연을 보며 음식을 나누고 있었다. 우리 또한 즐거움으로 한창 축제를 즐기던 중 축제무대에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다. 훌륭한 공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탈춤 공연에 마을 사람들은 큰 박수와 환호성을 보내 주었다. 단순히 우리들, 협의회 참가자들만 알고 느끼고 돌아갈 뻔한 탈핵과 평화를 위한 우리의 만남을 마을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소개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외팔이 서퍼, 영화 소울서퍼의 이야기와 한미미 위원님의 서로의 사랑으로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설교와 예배로 시작된 **셋째 날**, 일본 참가자들의 하마오카 원자력발전소 견학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지진대 위를 아슬아슬하게 피해 세워

져 일본의 축대라 불린다는 하마오카 원자력발전소. 지극히 부실한 지반 위에 세워져 약한 지진에도 무너질지 모르는 송전탑을 안전하다고 얘기하고, 해안가 쪽의 쓰나미를 막는 방파제를 높이 올렸으니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에는 문제없다고 주장하며,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위험한 핵에너지가 청정한 미래의 녹색에너지라고 말하는 하마오카 원자력발전소 홍보관까지 우리의 울분을 토할 수밖에 없는 현실의 연속이었다. **마지막 날** 선보일 세가지의 액션플랜 홍보물, 연극, 노래를 준비한 뒤 그날 저녁 가까운 계곡에서 물장구치며 물놀이를 즐기고 서로의 장기를 뽐내는 시간을 가졌다. 서로의 노래를 같이 부르며 손을 잡고 호응하며 뛰노는 모습에 언어도, 문화도, 살아온 나라도 다르지만 한 가지의 공통된 주제를 공유하고 고민하며 Y라는 공통된 공간 안에서 진정으로 마음을 나누고 사랑하는 평화의 만남을 가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마지막 날, 모두가 준비한 세 가지 액션플랜의 발표가 진행되었다. 지금의 핵문제를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없기에 모두의 관심과 함께 지속적으로 해결해 가야한다는 의미를 담아 그린 홍보마크, 도레미송을 귀여운 가사로 개사하여 감쪽한 울동과 함께 핵문제를 담아낸 노래, 그리고 로미오와 줄리엣을 패러디하여 우리의 에너지 절약과 실천으로 원자력발전소를 없애고 핵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는 의미를 전달한 연극까지! 모두의 훌륭한 아이디어와 재능으로 이루어진 퍼포먼스에 우리의 하나됨이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겨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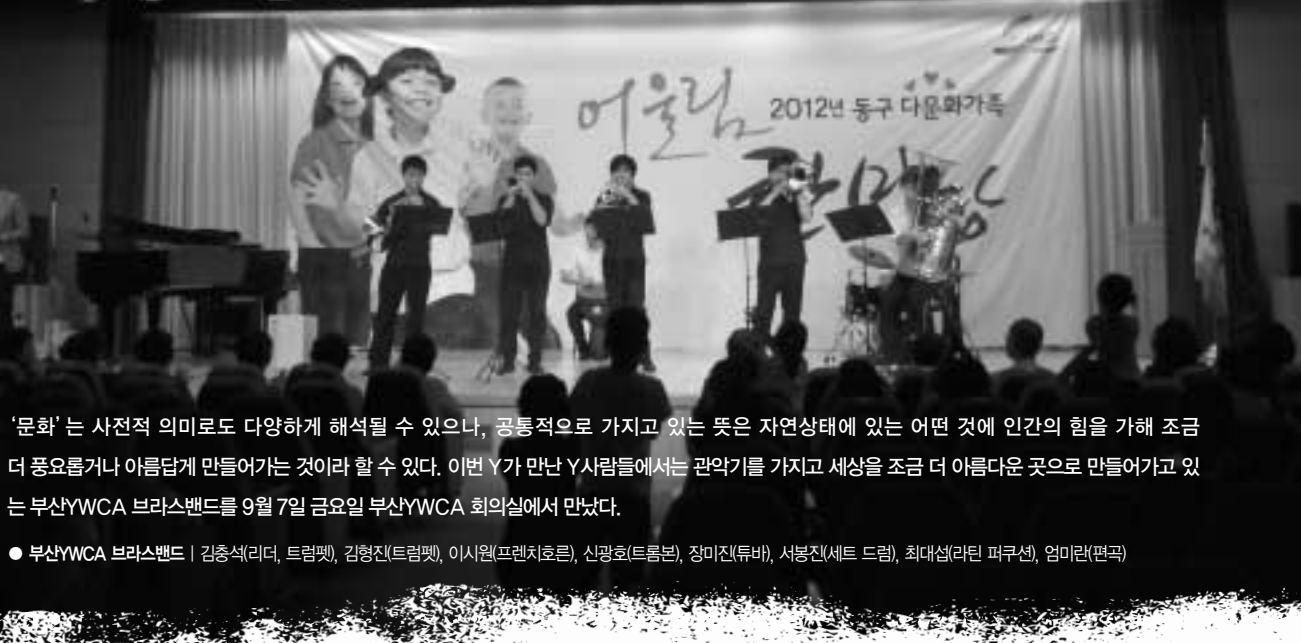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직접 만든 탈핵 홍보마크와 함께 우리 모두의 소망을 적어내며 아쉬움을 뒤로한 채 협의회 일정은 마무리 되었다. 3박4일간의 협의회 동안 한국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독도가 자기 땅이라 우기는 몰지각한 일본인은, 일본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다케시마를 불법 점령하고 있는 몰상식한 한국인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그곳에는 탈핵을 소망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따뜻한 사랑을 가진 사람만 있었을 뿐이었다. 아무리 무시무시한 핵무기를 손에 쥐고 있다 한들 서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과연 쓸 수 있을까? 우리는 3박4일 동안 서로에게 무기를 겨눌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하고 평화를 나누었다. 아픔의 과거를 가진 미나마타에서 이루어진 우리들의 작은 평화의 만남이 탈핵을 향한, 세계의 평화를 위한 시작이 되기를 바래본다. 



부산YWCA 브라스밴드

원하시는 모든 음악을 들려드립니다!

정리 | 편집실



'문화'는 사전적 의미로도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으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뜻은 자연상태에 있는 어떤 것에 인간의 힘을 가해 조금 더 풍요롭거나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번 Y가 만난 Y사람들에서는 관악기를 가지고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부산YWCA 브라스밴드를 9월 7일 금요일 부산YWCA 회의실에서 만났다.

● 부산YWCA 브라스밴드 | 김중석(리더, 트럼펫), 김형진(트럼펫), 이시원(프렌치호른), 신광호(트롬본), 장미진(튜바), 서봉진(세트 드럼), 최대섭(리턴 퍼쿠션), 엄미란(편곡)

Q 만나서 반갑습니다. 부산YWCA 브라스밴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부산YWCA 브라스밴드는 단원 모두 금관악기와 음악을 전공하고 찾아가는 음악회, 거리음악회 등 친근하고 편안한 음악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양상블입니다. 정통 클래식은 물론, 팝, 재즈, 가요까지 모든 장르를 넘나들며, 시민들이 원하는 다채로운 레퍼토리로 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연주를 지향합니다. 2011년 5월 부산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어, '부산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적인 문화공연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Q 말씀하신대로 부산YWCA 브라스밴드는 작년 4월 부산광역시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되어, 5월부터 새롭게 그 활동을 시작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문화예술그룹이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된 것은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브라스밴드가 사회적기업으로 된 계기가 있었습니까?

저희 팀원들 대부분은 부산YWCA 브라스밴드로 결성되기 전에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 부산YWCA 브라스밴드 단장님께서 부산시립교향악단에 계시는데, 단장님께서 금관악기를 연주하는 음악인들의 취업이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현악기 전공자들은 금관악기에 비해 레슨 수요가 많아 개인 레슨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금관악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시립교향악단에서도 그 많은 금관악기 전공자들을 모두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단장님께서 사회적기업을 알아보셨습니다. 즉 음악인들의 이상과 현실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안으로 사회적기업을 생각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을 위해서는 모기업이 있어야 하는데, 단장님께서 부산YWCA가 비영리단체로 우수한 사회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기에 부산Y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일에 앞장서왔던 부산Y는, 청년예술인들이 일할 수 있는 브라스밴드의 취지를 이

해하고 부산YWCA 이름으로 브라스밴드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탄생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산YWCA 브라스밴드는 음악인들이 사회에 나와서 직장을 갖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음악인들이 전공을 살려서 음악을 하면서 현실의 어려운 부분들도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또한 청년문화 예술인들의 힘으로 기업을 만들어서 사회적으로도 공익을 달성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Q 예비사회적기업으로 활동하시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음악활동에 몰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산YWCA 브라스밴드의 차별성을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저희 브라스밴드는 정통 클래식부터 대중가요까지 모든 장르를 아우르는 음악을 합니다. 그래서 팀원들 모두 다재다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저희가 원하는 음악 방향을 청중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기보다는 청중들이 '원하는' 음악에 초점을 맞추어 연주를 합니다. 청중들이 좋아하는 음악, 음악을 듣고 감동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편안한 음악을 추구합니다. 음악은 특정 계층만 누릴 수 있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 저희 팀에는 전담 편곡자가 있어서 같은 곡이라 할지라도 청중의 연령과 취향을 고려해서 음악을 편곡해 연주합니다. 또한 저희들은 음악을 통한 복음 전파도 목적으로 합니다. 금관악기 특유의 울림과 서정성으로 청중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Q 부산YWCA 브라스밴드는 연주회 외에도 아동, 청소년을 위한 예술교육사업도 활발히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들도 음악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악기를 매개로 음악교육을 합니다. 특히 친환경악기를 개발하여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쉽게 가지고 놀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타악기와 놀자' 청소년 대안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이 음악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을 합니다.


Q 부산YWCA 브라스밴드는 기독교여성시민단체인 부산YWCA 이름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부산YWCA가 펼치고 있는 운동과 브라스밴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산YWCA 브라스밴드는 음악을 통해서 시민과 소통하며

시민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산YWCA가 펼치는 운동은 시민들을 위해 시민들에 앞서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부산YWCA 브라스밴드는 문화 영역 속에서, 음악이라는 매체를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란, 음악을 포함한 문화가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쉽게 다가가서 즐길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예로, 부산의 야구장은 늘 사람들도 붐비지만 음악회장은 텅 비어있습니다. 시민들이 음악, 음악회, 문화예술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견을 깨뜨리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이 문화영역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다리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Q 부산YWCA 브라스밴드는 '문화'를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앞으로 YWCA가 더욱 강화해야 할 문화적 요소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화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만들어내는 것으로 삶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같이 즐기고 공감하고 공유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문화활동이라는 것도 자본주의적 사고방식대로 소비적 활동이 되는 경향이 큰데, 문화적 삶의 향유를 통해 휴식과 평안함, 안식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YWCA는 오래된 역사만큼이나 Y만의 색깔이 강한데, 시민들이 조금 더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은은한 방향처럼 시민들에게 흡수될 수 있는 향기를 만들어내면 좋겠습니다.

Q 부산YWCA 브라스밴드의 비전과 소망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저희들의 음악이 귀만 즐겁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메시지를 담아 감동적인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레퍼토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아픔들을 쓰다듬을 수 있는 음악을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또한 소외된 어린이들에게 악기를 가르쳐서 YWCA 유소년밴드를 만들고 싶습니다. 브라스밴드 단원으로 음악을 하면서 받았던 사랑을 다시 아이들에게 음악으로 전해주고 싶습니다. 현재 부산YWCA 브라스밴드는 한 달에 평균 20회 정도 공연을 하는데, 내년에는 전국을 단위로 활동을 하고 싶고, 장기적으로는 한류브라스밴드가 되고 싶습니다. 지금은 10명 정도의 소규모로 활동을 하지만 차차 늘려나가 구세군 악대처럼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남북 농업협력 및 지원활동과 안주지역 수해피해 상황

글 | 김필주(지구촌농업협력 및 식량나누기운동본부 회장)



김필주님은 북한 안주 지역에 옥수수 지원 사업을 10여년 간 진행했으며, 현재는 황해도 농장 경영을 통한 지역 개발을 하고 계시다. 본 글을 통해 최근 안주 지역 등 홍수 지역을 방문한 상황을 공유하고자 한다.

서울에 도착하여 최근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볼라벤과 덴버의 상흔을 텔레비전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보고 듣고 가슴 아파하며, 피해를 입으신 많은 분들께서 하루 속히 복구하기를 바라며 성원을 보낸다.

나는 1989년부터 지난 23년간 식량부족으로 고생하는 북측의 우리 동포들이 식량 증산을 위하여 애쓰는데 신들메라도 들어드릴까 하여 노력해 왔다. 모든 농업 기자재가 부족하고 황폐한 토양조건 등 참 많은 고난 속에서 허리가 휘는 노동을 하면서도, 웃음지은 표정으로 꾀꾀하게 농사를 짓는 우리 농장원들을 보면서 고개를 숙이게 된다. 냉전 시대, 미국 굴지의 종자회사에서 유럽, 특히 동구권을 드나들며 종자 생산기술지원을 하였던 덕에, 북으로부터 옥수수 품종개량을 도와 달라는 주문을 받았다. 그때 회사의 격려로 시작되었던 인연이, 긴 세월 북녘동포들과 고락을 같이 하는 보람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북한 농업과학원을 통하여 옥수수 품종개량을 목적으로 시작한 사업의 인연은, 대홍수 이후 북한 농업성의 요청으로 원화협동농장의 농업 기자재와 식량증산을 위한 기술지원으로 이어졌고, 이후 옥수수 직파재배, 봄보리 이모작 정착 등을 거쳐, 농업성 주도아래 식량증산을 돕는 일에서 몇 개의 농장을 맡아서 협력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


2004년 북측의 요청을 받아 당시 처음으로 북한에서 목화 농장을 시작하였으며, 지난 9년간 황해북도 봉산군 천덕리를 비롯한 황해남북도의 4개 농장에서 1천여 정보의 목화재배와 2천여 정보의 식량생산 등 천만 평에 가까운 지역에서 농장원

7천여명과 부양가족 등 인구 1만 7천여명과 더불어 동고동락해왔다.

지금은 식량생산을 주로 하는 농장을 하나 더 맡아서, 벼를 비롯한 옥수수, 밀, 보리, 감자, 고구마 등 식량작물 재배는 물론, 시장확보를 위한 경제작물재배를 위하여 온실재배, 유기농, 식품가공 등 부가가치창출을 통한 친환경 지속가능한 농사를 도입하여, 행복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 농장원들은 비교적 안전한 성격으로 열심히 일하고 잔잔한 웃음을 잃지 않고 일한다. 외부에서 들어와 이들과 협력하여 일을 하는 내게는 큰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7월 몰려온 폭우는 선천, 신안, 안주, 개천, 박천 등 평안남북도를 잇는 청천강유역에 큰 피해를 입어 수백 명이 숨지고, 수천세대가 집을 잃으며 수십만 명의 이재민을 내는 참사를 불러왔다. 옆의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황은 그 참혹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특히 안주는 시가지 대부분이 물에 잠겨 훼손되었으므로 그 복구 작업에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9일 장화와 가루비누를 가지고 수해지구를 다녀왔다. 장화를 받고 내 품에 안겨 흐느끼던 젊은 여인의 모습이 내 가슴을 에는 듯하여 결코 잊혀지지 않는다. 주춧돌마저 뿔뿔히 나간 폐허 위에 불면 날아갈 듯한 비닐 은신처를 만들어 지내는 그들이 먹을 것도 없이 어떻게 겨울을 날 수 있을지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 없다.

한국YWCA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를 통한 북한 수해 지원을 결의하였다. 이후 최근 남측 정부의 제재 및 북측 정부 지원 거부로 인해 지원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나, 북한 수해 창구가 개방되기를 바라며 기도와 모금을 진행하고 있다. 

● 모금처 : 농협 386-12-000052 한국YWCA연합회

북한 홍수 피해 상황

7월 17일부터 29일까지 북한 내륙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발생하였으며, 조선중앙통신에 의하면, 지난 8월 4일까지 169명의 사망자와, 400명의 실종자. 그리고 21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6만5천ha의 농경지가 침수되었다고 한다. 그 뒤에도 집중호우 및 태풍의 영향으로 피해액은 더욱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 물에 잠긴 안주시 도로
2 수해로 쓰러진 옥수수
3 홍수로 인해 무너진 집터 앞 이재민들



이념에서 가장 먼곳으로부터 시작하는 평화의 몸짓 영화 코리아


글 | 하은경(연합회 평화나눔팀 위원 / 음악치료임상연구소장)

영화 코리아는 남북 단일 팀으로 구성된 탁구선수들이 1991년 지바 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이다. 대한민국 탁구신화 현정화 선수와 북한의 리분희 선수를 중심으로 남과 북이 단일팀으로 세계선수권 도전을 위한 준비 캠프와 선수권 도전의 이야기를 다양한 각도에서 담고 있다. 이 영화는 스포츠라는 앵글을 통해 남북의 이념 차이, 문화 차이, 생각 차이 등등의 문제를, 같은 언어를 사용하여 의사가 통하는 언어적 벽은 없으나 남과 북이 따로 걸어온 수십년 간의 괴리를 적절하게 드러낸다.

처음 남과 북의 단일팀을 만들어 선수들이 만나고 훈련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상대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갖게 되는 상대에 대한 두려움이 팽팽한 긴장감으로 잘 드러난다. 그러기에 선수들은 서로 말이 통하지만 그 저의를 의심하며 두려움에 낯선 각을 세운다. 유구한 한반도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한국전쟁 이후 남과 북이 갈라진 60여 년이 그리 긴 세월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제 전쟁으로 이산가족이 된 세대가 과거의 시간으로 흘러가는 시점에 이르렀다. 현대사회의 10년은 과거에 강산이 변한다는 시간보다 그 양과 질적인 변화가 훨씬 방대해 저서 남과 북 사이의 더 커다란 괴리감이 생기기 이전에 우리는 더욱 다양하고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우리보다 앞서 통일을 이룬 독일의 통일 과정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많다. 한 예로 서독인들은 실질적인 통일을 이루기 전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동독인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를 했다. 당시 서독은 경제적으로 부강했으며, 동독은 지금의 북한보다 경제난이 더 심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 독일을 이룬 서독에서는 동독과의 괴리를 메우기 위해 쏟아부은 경제적 투자로 인해 서독의 모든 공공요금과 세금을 인상해야만 했다. 현재의 남과 북의 경제차이는 통일 당시 동서 독일의 경제차이에 비해 훨씬 더 극심하다. 현재의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어 가고 있다. 안정되고 탄탄한 경제력의 서독이 통일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많은 국민들의 원성이 있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은 차근 차근 문제를 해결해 나갔고, 지금

도 진행 중이다. 과거 동독 드레스덴(Dresden)이라는 도시의 여자교회(Frauen Kirche : 프라우엔 키르헤)는 전쟁으로 불에 탄 귀중한 문화 유산이었지만 오랜 세월 동안 동독에서는 그 교회를 재건할 생각도 못했었다. 그 여자 교회는 시커먼 그늘에 휩싸여 무너져 내린 모습 그대로 흉물스런 모습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하지만 통일 후 서독의 많은 사람들이 여자교회 재건 재단을 설립하여, 귀중한 문화유산을 되찾아 지금은 많은 관광객들의 명소가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경제적인 한 예만 보아도 분단상황이 길면 길수록 다양한 방면의 괴리가 점점 더 커지는 기정 사실 때문에 통일 한국을 생각할 때 더욱 조바심이 생기게 된다.

통일의 과정은 이념에서 가장 먼곳으로부터 시작된다. 스포츠, 경제협력, 관광 등등... 애써 물고를 뜬 남북관계에 다시 냉기가 흘러 남과 북의 관계를 점점 더 개선하고 발전시키기는 커녕 다시 뒤로 퇴보하고 있는 이 시점이 그래서 더욱 안타깝다. 현정화 선수가 리분희 선수에게 묻는다. “남한에서 살고 싶지 않니? 남한이 더 살기 좋으니까...” 리분희가 답한다. “그럼 미국이 남한보다 더 잘사니까 난 미국에서 살지 그러니?” 우리가 한 부분만을 보고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그들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이렇게 더 많이 쌓여가기 전에 다시 다방면에서 부지런히 노력해야 한다. 영화속 북한에서 맡은 총감독의 ‘가슴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 는 말처럼 제발 정치인들도 가슴이 시키는 대로 통일한국을 위해 다시는 일보 후퇴하지 말고 꾸준히 다양한 분야의 노력을 다시 시작하면 좋겠다. 

성범죄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촉구하는 한국YWCA 성명서

최근 연이어 드러나는 아동 및 여성에 대한 성폭력 사건을 대하며, 우리는 충격과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의 부실한 안전망에 대해 불안감과 실망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성폭력은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의식과 뿌리깊은 성차별주의에 기인하며, ‘묻지마 범죄’와 같이 구조화된 사회적 양극화 현상이 빚은 반사회적 분노가 표출된 중대한 범죄이다. 이러한 사건들은 사회 경제적 약자인 아동과 여성들을 대상으로 횡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최근 정부 차원에서 발표되고 있는 약물치료나 가해자 엄벌주의는 개인의 기질만을 문제 삼은 일시적이며 국소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더욱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친고죄 폐지, 음주 감경 요소 제외 등 법률적인 보완, 가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지역적·국가적 단위의 사회 안전망 마련, 그리고 왜곡된 성문화와 성차별을 근절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토양이 개선되어야 한다.

이에 한국YWCA는 성폭력이 직접적인 생명 위협임은 물론 성차별의 또 다른 형태로서 인권 침해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 사회에 어떠한 유형의 폭력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굳게 지켜냄과 동시에,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에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1 성차별 및 성의식에 대한 왜곡된 의식 개선이 시급함을 인식하고,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성평등 교육 및 인권 교육을 학교 교육과 사회 교육으로 실시하며,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적 미디어 문화 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
- 2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과 재범 예방 교육, 피해자에 대한 법적·심리적·의료적 지원 확대, 피해자와 가족들을 위한 심리적·지역적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힘써야 한다.
- 3 기존의 시민 안전 인프라를 내실 있게 가동하며, 공부방, 쉼터 등 아동 및 청소년의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는 시설에 대한 실질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예산 확보를 통해 지역공동체가 지역 사회의 안전을 돌보도록 해야 한다.
- 4 이주여성, 새터민여성, 장애인, 아동 등 폭력에 노출되기 쉬운 사회·경제적 약자의 열악한 현실에 관심을 갖고 지역적 연대를 통한 다각적인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여야 한다.

2012. 9. 11.
한국YWCA 연합회

생명의 연약함을 사랑하고 돌보는 사회를 위하여

글 | 이윤숙(연합회 생명비전연구소 부장)

온 나라가 다 아프다. 강물과 바다, 산천과 초목들이 한편으론 커다란 자연재해로, 또 한편으로는 국토 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상처받고 수난을 당하고 있다. 또 그렇게 신음하는 산하에 사는 못 백성들도 아프고 또 아프다. 삶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차라리 죽음을 택하는 자살자가 OECD국가 가운데 가장 높고, 젊은이들이 돈 때문에 연애하고 결혼하여 아이를 낳아 기르기를 포기해야만 하는 나라, 가난하고 힘없는 소녀들과 여성들이 성적으로 도구화되고 착취되며 끔찍한 폭력으로 희생되는 일이 매일 수없이 빈번히 일어나는 나라, 많은 노동자들이 자기 일자리에서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하고 열악한 비정규직 환경에서 일해야만 하는 나라, 그런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 모두가 그 아픈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 몸부림을 친다. 그래서 어딜 가나 '힐링' 열풍이다. 힐링 음악, 힐링 요가, 힐링 푸드, 힐링 영화, 힐링 가전, 심지어 텔레비전 토크쇼에마저 '힐링' 이란 말이 붙어있다.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웰빙' 을 외쳐대며 상품화된 웰빙을 찾아 발버둥치던지 그리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를 '웰빙' 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귀 기울이고 생각할 틈도 없이 대세를 따라 이제 저마다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 아우성이다. 왜 그토록 아픈 것인지 찾아내고 성찰할

여유도 없이 '약국에서 진통제 사 먹듯', 그렇게 '힐링' 은 즉시 구매하여 소비하는 '상품' 이 되어버렸다.

꽤 오래 '몸' 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절실히 깨달은 것은, '아픔' 을 느끼는 것이야말로 생명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스스로를 조직하는 생명체는 아픔을 감지하는 정교한 몸의 장치를 통해 자신을 지키고 다른 생명과 교감한다. 그래서 유전적 문제나 후천적인 질병으로 '통증' 을 지각하는 능력을 갖지 못하게 되면, 자신이 당면한 위험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게 되고 또 다른 생명의 '돌봄' 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된다. 그뿐 아니라 타인의 고통 또한 알 수가 없어 공동체에 위협을 가하는 행동을 하거나 스스로에게 위험스런 행동을 하게 되어 결국 생명이 위태로워진다(그런 병들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 이 글이 불편함을 준다면 용서를 구합니다).

늘 상처받고 고통을 느껴야 하는 생명은 그런 의미에서 연약하기 그지없다. 그래서 고통과 상처 없이 강인한 것이 생명의 본질이 아니라, 고통을 '잘' 느끼고 상처를 기꺼이 감수하여 위험스런 환경에 대항할 새로운 힘을 만들어내는 것이 생명의 본질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그런 연약한 생명은, 함께 살아가는 또 다른 생명이 '고통' 의 신호를 보낼 때 잘 돌보고 치유함으로써 스스로가 위협에 처했을 때 다른 생명으로부터 보

호받고 돌봄을 받아 성장할 수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건강하고 굳건한 사회는, 그러한 생명의 연약함을 사랑하여 보듬어 안고 서로서로 잘 '돌보는' 사회라 할 수 있다.


많은 이들이 우리 사회가 아픈 이들로 넘치는 이유가 무한 경쟁이 가져다 준 고단함, 그 속에서 온 좌절과 분노라 이야기한다. 그러나 여전히 그 아픔을 '해결' 할 수 있는 길은 더 질 좋은 '힐링' 상품을 마음껏 구매할 만큼 부와 권력을 얻는 것이 되고 있다. 돈으로 간단히 '즐거움' 과 '위안' 을 사고, 명품으로 '존경스런 시선' 과 '자신감' 을 사는 소비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힘을 얻고, 얼마나 많이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도구화할 수 있는가가 경쟁력이 되고 '성공' 의 잣대가 되는 문화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그 환경이 아직도 너무나 견고한데 그 많은 아픈 사람들이 과연 제대로 '치유' 받을 수 있을까? 아픈다는 신음과 비명 소리가 잦아들 수 있을까?

생명의 연약함이 간단히 부정되고, 고통스럽다 비명을 내질러도 아무런 돌봄의 손길이 돌아오지 않는 사회, 자신의 안녕이 타인의 고통 위에 있다는 것에 무감각하며 더 나아가 자신의 위안을 위해 타인을 쉽게 도구화하는 사회는 생명이 사는 사회가 아니라 거대한 기계로봇이 지배하는 사회이다. 우리는 이미 그 사회에서 스스로 생명이기를 포기하고 공동체의

생명을 짓이기는 괴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

헨리 나우웬은, "모든 열매는 상처받기 쉬운 연약함에서 잉태된 열매이고 공동체는 서로의 상처를 나누는 가운데 태어난 열매이며, 친밀함은 서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어루만짐을 통하여 자란 열매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는 것은 성공적인 삶이 아니라 열매 맺는 삶을 서로에게 상기시켜 주십시오." 라고 말했다.

더 많은 권력과 부를 얻음으로써가 아니라, 고통의 근본을 잘 돌아보고 서로의 고통을 감지하여 서로를 돌보는 것을 통해서만이 기쁨을 얻고 진정한 '치유의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잘 말해주고 있다

하나님께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생명의 창조자로서 그 누구보다 생명의 연약함을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크신 뜻에 다시 한번 경탄과 은혜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아프다고 큰 소리 내는 사람은 많지만 고통에 귀 기울이고 돌봄의 손길을 내밀기에 인색한 오늘 이 사회 속에서 우리들에게 '생명의 연약함' 을 사랑하고 보듬고 그것을 돌보라고 명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 어느때보다 더욱 크고 절박하게 들린다. 

나는 집 안에서 살아본 적이 없다!

삼하 7:4-17

글 | 장빈(동광교회 목사)


사무엘하서 7장 1절을 보니, 지금 다윗은 백향목으로 왕궁을 짓고 그 안에서 평안히 살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왕궁에 앉은 다윗이 하나님을 기억한다. “하루는, 왕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7:2) 이에 예언자 나단이 이렇게 말한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무엇이든지 뜻대로 하십시오.”(7:3) 그렇게 왕과 예언자는, 그날, 하나님이 들어가 사실 집을 지어 드리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그날 밤, 주님은 나단을 찾아오시어, 충격적인 말씀을 주신다.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가서 나 여호와와의 말이라 하고 이렇게 일러라. ‘내가 살 집을 네가 짓겠다는 말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던 때부터 지금까지, 천막을 치고 옮겨 다녔다. 나는 집 안에서 살아본 적이 없다.’”(7:4-5) 번안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집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집이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왕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가 사실 집을 지어 바치겠다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살 집을 네가 짓겠다는 말이나? 나는 집 안에서 살아본 적이 없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정반대였다. 그러자 다음 순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드린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나는 누구입니까? 내 집은 무엇입니까?”(7:18) 왕궁에 앉아서 예언자를 불러 하나님의 집을 짓자고 거만하게 말하던 다윗이, 법궤를 모신 천막 안에 들어와 여

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 조아려 기도한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 떼를 따라 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나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네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7:8-9) 그 순간 큰 깨달음을 얻은 다윗, 놀라운 고백을 한다. 주목할 점은 모든 주어가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다. 마침내 이렇게 간구한다.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받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집이 없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었다. 이집트에서 400년 이상 더부살이하던 히브리 노예들을 구원하여 땅과 집을 주신 하나님, 집도 없이 떠돌던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과 동행하시느라 늘 저들과 함께 천막에서 생활하신 하나님,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다. 문제는 집 없던 히브리 노예들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 집을 갖게 되면서, 집 없던 시절에 만났던 처음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졌을 뿐만 아니라, 저들 자신이 이젠 집 없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학대하는 자리에 섰다는 데 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집 한 채 지어 드리겠다고 나섰던 것이다. 하나님께도 그럴 듯한 집을 지어 드리는 것이 최고의 섬김이라 착각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지금까지 집 안에서 살아본 적이 없다. 그러니 나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가 지은 집에 가두려고 하지 말라. 너희가 지어준 집에만 머물 수가 없다. 나는 집 없는 자들의 하나님이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선적으로 집 없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신다. 이젠 너희가 저들 집 없는 자들의 집이 되어 주라고, 하나님의 교회란 집이 없어 떠도는 인생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는 나그네들의 집이 되어야 한다고, 이미 크고 좋은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모여, 더 큰 교회당을 지으려고만 하지 말고, 이젠 집 없는 자들의 집이 되어 주라고 명령하신다.

간절히 바라기는, 90회 생일을 맞이한 YWCA가, 아직도 집이 없어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집이 빼앗겨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모든 이들에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제공하는 아름다운 집이 되기를 기대한다. 아멘. 

연합회 소식

9월 월례아침기도회



연합회는 9월 3일 오전 7시 30분에 9월 월례아침기도회를 열었다. 장빈 목사가 ‘나는 집 안에서 살아본 적이 없다!’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으며 정의·평화·참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YWCA 월례아침기도회는 전국의 회원Y가 함께하고 있으며 기도회를 통해 YWCA를 영적으로 깨우고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한국YWCA 90주년 전국회원대회

8월 18일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한국YWCA 90주년 전국회원대회가 열렸다. 회원Y, 청소년 회원, 내·외빈 등 약 4,500명이 참석하였다. 전국회원대회에서 한국YWCA 100주년을 향한 ‘청·춘·여·찬’의 비전을 선포하였다. (자세한 내용 6P~)

한국YWCA 90주년 청소년전국회원대회

8월 17일~18일 1박 2일간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한국YWCA 90주년 청소년전국회원대회가 열렸다. ‘평화마을 만들기’ 주제로 열린 이번 청소년 전국회원대회는 Y-틴 121명, 대학Y 회원 44명, 다래교실 청소년 89명, 실무자 등 총 350명이 참가하였다. 여친구와의 평화콘서트, 평화마을 워크숍, 평화콘서트, 평화퍼포먼스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한국YWCA 90주년 전국회원대회 비전선포식 중 ‘통일리더십 아카데미’에 관한 플래시몹 행사를 펼치기도 했다. (자세한 내용 10P~)

2012 친친공감프로그램 강사교육 워크숍

8월 9일~10일 1박 2일간 YWCA 버들캠프장에서 2012 친친공감프로그램 강사교육 워크숍을



진행했다. 회원Y의 친친공감프로그램 강사 50명, 실무자 4명, 워크숍 강사 8명 총 62명이 참가하여 친친공감프로그램 수업내용 워크숍, 청소년 대상 교실수업 진행방법 등을 교육하였다.

YWCA 지구시민자원활동가 ‘도스뜨’ 현장답사



연합회는 8월 20일~27일 YWCA 지구시민자원활동가 ‘도스뜨’ 현장답사를 다녀왔다. 인도Y와 현지자원활동 프로그램 협의, 구와하티Y, 방갈로레Y와 현지자원활동 프로그램 일정논의를 하였다. 한편 ‘도스뜨’는 9월 20일부터 11월 14일까지 총 12명을 파견하여 인도 현지에서 여성과 청소년을 위한 교육 및 생활개선 활동을 펼친다.

한국YWCA 90주년 전국회원대회 보고회

연합회는 8월 27일 연합회 강당에서 한국YWCA 90주년 전국회원대회 보고회를 하였다. 전국회원대회 준비위원, 각 분과위원, 출연자, 수상자, 실무자 등 약 7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전국회원대회 사업보고와 제안들을 나누고 수고하신 위원들께 감사인사를 전하였다.

제14차 한·일Y청(소)년협의회

8월 24일부터 27일까지 3박 4일간 일본 규슈 미나마타시에서 제14차 한·일Y청(소)년협의회가 있었다. 한국 참가자 21명, 일본 참가자 19명 총 40명이 참가하였다. 미나마타시 탐방과 반핵을 위한 액션 플랜 워크숍, 한·일 참가자 문화공연을 통한 문화 교류 활동이 이루어졌다. (자세한 내용 18P~)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그리스도인연대 정책협의회



8월 31일 연합회 강당에서 핵그런 정책협의회가 열렸다.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 그리스도인 제안회의’로 열린 이날 협의회에는 회원단체 총 60여 명(대전, 대구, 부산, 광주, 서울Y 참석)이 참석하였고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기독교 행동계획 분임토의와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 기독교의 응답’이라는 주제의 전체토론이 있었다.

2012 YWCA 복지관장 연구모임

8월 30일 대전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2012 YWCA 복지관장 연구모임이 있었다. YWCA 복지관 및 자활센터장 11명이 모였으며 지역 복지관 현황소개, 독거노인 종합지원 확대사업 관련 논의를 하였다.

연변민들레문화교류협회 지도자 초청 및 교육

연합회는 연변민들레문화교류협회 지도자 초청 및 교육을 하였다. 연변민들레문화교류협회 부회장, 이사 등 총 세 명이 방문하였으며 8월 16일~9월 중순까지 자원지도자의 역할 이해교육, 회원YWCA 및 부속시설 방문과 교육을 진행하였다. 한편 9월 중순부터 3개월간 연합회 실무자가 협회 및 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위해 파견된다.

90주년 기념영화 <사랑을 말하다> 시사회

서울과 전주에서 한국YWCA 90주년 기념영화 <사랑을 말하다>시사회가 있었다. 서울지역에서는 9월 13일(목) 오전 11시30분, 14일(금) 저녁 7시 두 차례 영화 상영이 있었고, 13일(목) 저녁 7시 전주 디지털독립영화관에서 회원Y 시사회가 있었다. (자세한 내용 30P)

동정

- 이윤숙 운동국 부장 채용(2012. 9. 1)
- 조영미 운동국 부장 육아휴직 (2012. 9. 1-2013. 8. 31)
- 손은하 운동국 간사 퇴직(2012. 8. 31)

YWCA 90주년 영화 <사랑을 말하다> 개봉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가치 전해

글 | 편집실



“전화성 감독을 비롯한 전 출연자의 재능 기부로 제작비 0원에 도전하는 영화”, “한국사회에서 여성이 직업인으로 일하는 것에 대한 인식과 편견, 돌봄 직종 종사자 노동의 가치와 다문화 이주 여성의 생활상 등을 YWCA 간사 ‘나영’의 시선으로 그려”, “앞으로 10년간 매년 한 작품씩 여성 인권 향상 관련 영화 제작” 등의 굵직한 문구들은 9월 13일 서울 KU씨네마테크와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에서 동시 개봉 후 매체에서 전하는 영화 ‘사랑을 말하다’에 대한 수식어다.

2012년, 한국YWCA 창립 90주년을 기념하는 해.

과연 우리YWCA는 한국사회에 우리가 추구하는 YWCA의 목적과 정신, 이를 통한 다양한 실천의 모습과 지향을 우리사회와 세계에 어떤 방식으로 전하고 있었을까? YWCA의 활동가로서 무엇을 어떻게 알리고 싶어하는가? YWCA가 90년의 역사를 통해 깊이 또한 끈기있게 지켜온 가치는 무엇인가?

한국YWCA 창립 90주년 기념 영화 ‘사랑을 말하다’는 실제 한국YWCA연합회 실무활동가의 실무 현장에서의 고민을 바탕으로 시작된 문제 의식과 내부 지도력의 비전 제시, 이를 시행할 젊은 영화감독의 실험 정신과 도전 정신이 의기투합하여 이루어 낸 공동창작물이다. 시나리오와 의상, 소품 및 촬영지원에도 연합회 실무활동가들이 직접 참여하였다.


‘사랑을 말하다’는 올해로 창립 90주년을 맞은 한국YWCA의 90주년 기념 영화로 주인공인 시민단체 활동가인 ‘나영’



● YWCA 90주년 영화 <사랑을 말하다> 시사회 현장(9월 13일 KU씨네마테크)

의 눈으로 본 한국 사회의 단면을 그리고 있다. 즉 한국 사회에서 돌봄 직종에 종사하는 돌보미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왜곡과 편견을 묘사하고,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다문화 가정의 이주인 여성이 겪는 가정폭력 문제도 다루고 있다. YWCA에서 실무활동가로 일하는 주인공 나영을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지원을 위한 직업교육과 일자리 알선, 각종 폭력으로 피해당하는 여성에 대한 치유와 예방 활동, 결혼이민 여성의 사회적응 지원과 다문화사회조성 활동 등을 통해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재조명된다. 혜성의 어머니인 옥자(나영이집의 돌보미)의 YWCA회원대회 수상소감을 통해 Y의 핵심가치인 돌봄과 살림의 의미가 감동적으로 전해지고, 사람과 가정을 살리고 이 사회를 살리는 돌보미의 긴 여운이 보는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이끌어낸다.

‘사랑을 말하다’는 전 출연진이 재능기부를 전제로 한 오디션 통해 선발되었다. 특별히 주인공인 나영의 남자 친구인 ‘혜성’으로 나오는 연극배우 윤혁진 씨는 서울YWCA가 운영하는 강남구립 강남청소년수련관의 연극동아리 ‘연아’에서 배우의 꿈을 키웠으며, 그런 계기로 YWCA가 영화를 만드는데 기쁘게 재능을 기부할 수 있었다. 세 번의 영화상영 수익금 전액 역시 YWCA가 지원하고 있는 평안남도 안주 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한 분유 지원 금액으로 쓰이게 된다.

한국YWCA는 스물아홉살(2011), 겨울냄새(2011)에 이어 ‘사랑을 말하다’를 제작한 전화성 감독과 함께, YWCA 100년을 향한 90to10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앞으로 10년간 매년 한 편씩의 작품을 계속 제작하게 된다. 영화의 주제는 한국YWCA가 지난 90년 간 활동해 온 여성의 직업 및 직종개발 운동, 친족 상속권 차별조항 철폐운동, 호주제 폐지를 위한 가족법 개정운동, 생명운동, 평화통일 운동 등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여성인권향상 운동이다. 

회원YWCA 소식

YWCA News

● 북부

강릉 YWCA 박현순 간사

● 이웃사랑 민들레 나눔장터

강릉Y는 9월 14일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독거어르신, 청소년 등 이웃사랑 후원을 위한 민들레 나눔장터를 개최하였다. 유기농 우리농산물을 직접 구매하고 EM제품, 의류, 가방 등 다양한 장터품목과 정성껏 만든 먹거리 등을 판매하여 많은 회원들과 시민들의 호응을 받았으며 나눔장터를 통한 판매수익금은 우리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YWCA의 사랑을 전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 교도소생일잔치

강릉Y는 8월 16일 7,8월에 생일을 맞은 재소자와 자원지도자가 참석한 가운데 생일잔치를 하였다. 예배와 레크레이션 축하행사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함께 어우러지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동해 YWCA 김정은 간사

● KB 동해 한글배움터 가족나들이



동해Y는 7월 26일 용화해수욕장에서 KB 동해 한글배움터 나들이를 하였다. KB 동해 한글배움터는 국민은행과 함께하는 사업으로 지리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소외된 다문화 가정을 직접 찾아가 그 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번 나들이를 통해 다문화 여성의 위치를 향상시키고 가족의 화합을 도모하는 시간을 만들었다.

서울 YWCA 박서영 간사

● 탄자니아 IT교육 봉사활동



서울Y는 7월 19일부터 8월 7일까지 3주 동안 대학생 자원봉사단원, 인솔자 총 30명과 함께 탄자니아 IT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네 번째 방문인 이번 활동에서 테게타 직업학교와 탄자니아Y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부분으로 나누어 IT교육을 진행했고, 키사오케 초등학교와 라피키 유치원에서는 감성을 높이는 교육활동, 지역주민 500여 명과 함께 마을축제를 열어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속초 YWCA 백수미 간사

● 한·일청소년 국제평화캠프

서울Y는 8월 7일에서 11일까지 한·일청소년 국제평화캠프(Korea-Japan Youth Camp for Peace)를 개최하여 강연, DMZ평화투어, 공동체훈련 등을 진행했다. 이번 캠프는 고베 YWCA와의 협력으로 이루어졌으며 후쿠시마 지진피해 학생들이 참가해 그 의미를 더하였다.

● 상록수학교 31기, 32기 졸업식 및 33기 개강식



속초Y는 9월 3일 상록수학교 31기, 32기 졸업식 및 33기 개강식이 있었다. 속초Y는 1998년 상록수학교를 열고 개강하고 올해 9월까지 일 년에 두 번 총 32기의 고입검정고시학습반을 야학으로 운영해 왔다. 평균연령 50세 이상인 31기, 32기 총 13명의 졸업생이 졸업증서를 수여하였고, 고입검정고시에도 합격하였다.

춘천 YWCA 이명화 간사

● 어린이 체험환경교실

춘천Y는 7월 28일 어린이 체험환경교실을 개강했다. 7월 28일부터 9월 22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외부체험5회, 실내체험 3회로 진행된다. 대상은 초등학교 3~6학년이다. 이번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생태체험의 장을 마련해 환경지킴의 중요성과 환경사랑 실천 방법을 느끼고 체험함으로써 아이들 스스로 자연과 더불어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자 한다.

● 경기

고양 YWCA 전선영 간사

● 청소년자원봉사대 물과 함께 걷기 캠페인



고양Y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명사랑운동의 일환으로 '물과 함께 걷기' 캠페인을 7월 30일, 8월 1일, 8월 6일 3일간 진행하였다. 첫날 환경강의와 EM흙공만들기를 시작으로 둘째 날 호수공원에서 물의 소중함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하였으며 마지막 날에는 성사천에서 EM흙공만들기를 하였다.

부천 YWCA 이지원 간사

● 만들레쉴씨 도서관 여름방학 프로그램 'EM을 활용한 천연비누 만들기'

부천Y는 초등학교 1-2학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EM을 활용하여 천연비누 만들기를 진행하였다. EM에 대해 알아보고 일상생활에서 EM을 활용하는 방법 등에 대해 배운 뒤, 천연 재료와 EM을 이용하여 직접 비누를 만들어보았다. 자연에서 얻는 재료들의 장점을 서로 나누면서 EM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이야기도 나누는 등 유익한 시간이었다.

성남 YWCA 황정아 간사

● 결혼식 말고 결혼해요

성남Y는 우리사회 결혼문화의 허례허식을 타파하고, 건전한 결혼 문화의 확산을 위해 교육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8월 28일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결혼의 의미와 결혼을 대하는 마음가짐' (강사: 석찬영 광주중앙교회 담임목사), 8월 30일 결혼적령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결혼을 준비하는 부모의 역할과 결혼 후 부모의 마음가짐' (강사: 박혜란 연합회 실행위원)이라는 주제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여성가족부 공동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시민들의 인식개선과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아름다운 결혼문화가 형성되고 확산될 것이라 예상된다.

수원 YWCA 정지영 간사

● 1,038차 수요시위 주관



1992년부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와 법적배상을 일본 정부 측에 요구하는 1,038차 수요시위가 9월 5일 일본대사관 평화로에서 수원Y주관으로 열렸다. 이명조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윤미향 정대협 대표의 경과보고, 극단 수요일의 특별공연과 자유·연대발언, 수원Y 노래공연, 성명서 낭독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수요시위 성명서에는 정의의 목소리가 외면되어지고 있는 현실에 통감하며 일본 정부에는 조속한 사죄와 배상을, 한국정부에는 사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촉구했다.

안산 YWCA 문성은 간사

● 다문화가정 3대 가족캠프



안산Y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8월 25일부터 26일까지 1박2일간 다문화가정 3대 가족캠프를 아산 스파비스에서 진행하였다. 첫 날은 부모교육, 시부모교육, 가족레크리에이션을 통해 가족 간의 이해와 소통법을 배웠고, 둘째 날에는 워터파크에서 가족끼리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다.

● 중부

논산 YWCA 김화선 간사

● 국가별 가족자조 모임

논산Y 다문화가족지원사업부는 결혼이민여성가족 및 부부 대상 국가별 가족자조 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9월 8일 캄보디아 여성들의 가족들이 모여 화합과 소통을 위해 저녁식사와 함께 가족소통프로그램을 가졌다. 부부, 가족(시부모님, 자녀) 등 대화를 통해 쌓여있던 마음과 갈등을 해소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시간이 되었다.

대전 YWCA 강은혜 부장

● 제17회 대전여성포럼 지방자치법규 및 사업에 대한 성 인지적 개선방안 모색

제17회 대전여성포럼이 '지방자치법규 및 사업에 대한 성 인지적 개선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7월 5일 열렸다. 오현숙 사무총장의 사회로, 주제발표 '지방자치법규 및 사업에 대한 성 인지적 개선방안 모색' (하랑성평등연구소 강선미 소장), '대전광역시 성 인지정책 및 사업분석' (대전시 여성가족청소년과 사무관), '지역발전정책과 성인지 인식확산을 위한 활동' (대전시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센터장)에 대한 내용을 듣고, 안양Y 조미영 팀장과 대전여성정치 네트워크 임정규 사무국장의 토론이 있었다. 이날 포럼은 대전지역 시민단체 및 대학교수, 대전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하여 여성과 남성 모두가 행복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모색하는 기회가 되었다.

세종 YWCA 홍진영 간사

● 세종시 자원봉사센터

세종Y는 전문자원봉사단으로 구성된 세종시 자원봉사센터 행복한동행과 함께 지역에 있는 세종시 면단위 지역을 순회하며 봉사의 손길을 나누고 있다.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아낌없는 봉사활동을 통해 소통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제천 YWCA 류인숙 팀장

● 청소년 자아성장 캠프

제천Y 새싹아동돌봄센터는 8월 15일~17일까지 평창청소년국립수련원의 소외청소년성장지원 사업 '우리두리한마음 다문화청소년캠프'에 참석하였다. 정신적, 신체적, 환경적 등의 여건으로 활동 참여가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어 다양한 활동의 경험을 하도록 하였다.

천안 YWCA 김상미 팀장

● 신입회원대회

천안Y는 8월 31일 신입회원대회를 열었다. 이날 회원 증모 목표달성자들의 수상과 평생회원들이 모여 회원 증모에 힘쓴 대원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냈다.

● 청소년유해환경 퇴치

천안Y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원들과 천안두정동 유해업소일대에 계도 및 순찰 캠페인에 나섰다. 유해업소에 직접 방문하여 업주들의 계도활동 및 '19세미만출입금지' 홍보물스티커 부착 여부 등을 확인하여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였다.

청주 YWCA 정미향 간사

● 사회적 기업 (주)생명살림 올리(ALL 利) 재개업



청주Y 사회적 기업 올리(ALL 利) 매장이 새롭게 단장하여 9월 4일 문을 열었다. 새롭게 업그레이드한 올리 버거, 14시간 발효시켜 구운 우리 밀 치아바타 빵, 청원군의 무농약 쌀로 만든 주먹밥, 따끈한 수프 등을 즐길 수 있다. 몸에도 사회에도 관계에도 건강함을 주는 ALL 利(모든 것에 이로운)가 되길 바란다.

충주 YWCA 김애영 부장

● 고려자 인재은행 단체급식조리사 과정 종강식

충주Y는 8월 20일부터 고려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단체급식보조원 15회기 과정을 마치고 9월 7일 수료식을 가졌다. 교육생 18명은 높은 연령만큼이나 배움과 새로운 일에 대한 열정도 높아 탈락자 없이 전원 수료하였으며, 학교나 기업의 급식소 또는 음식점에 주방조리보조원으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서부

광양 YWCA 정정숙 간사

● 물가안정 캠페인

광양Y는 9월11일 광양읍 매일시장에서 추석대비 물가안정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추석을 맞아 원자재와 농축산물 가격상승으로 급등하는 소비자물가에 대해 서민물가 안정캠페인을 실시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체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어 추석물가안정 분위기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계기가 되었다. 광양읍 매일시장에서 시민들에게 전단지 배부하며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며 진행되었다.

광주 YWCA 임서하 간사

● 태풍피해 농가 돕기 위한 낙과 사주기 장터

광주Y는 9월 3일~7일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 돕기 낙과 사주기 희망나눔 장터를 열었다. 이번 장터를 통해 피해 농가들은 정상적으로 판매하기 어려운 제품을 팔아 피해를 줄이고 시민들은 싼 값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였다.

남원 YWCA 조윤희 팀장

● **살림·산모돌보미 교육**



남원Y는 9월 2일~7일 살림·산모돌보미 교육을 진행하였다.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함양하는 직업교육을 실시하여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 및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교육 수료 후 무료직업소개소를 통해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목포 YWCA 황정원 팀장

● **목포시 여성연대와 오사카부립대학 여성학회와의 연계**



목포Y는 8월 30일 일본 오사카 부립대학 여성학회 관계자 23명의 목포YWCA회관 방문을 맞이하였다. 이번 방문은 목포시 여성연대와 함께 기획한 것으로 9년째 여성차별과 폭력을 반대하며 여성의 인권운동을 함께하고 있다. 목포시 여성연대는 YWCA, 여성의전화, 여성장애인연대, 환경운동연합, 아이쿱목포생협으로 구성되어있다.

순천 YWCA 김정민 팀장

● **POSCO-YWCA 함께하는 폭력 없는 평화학교만들기**

순천Y는 광영중학교와 함께 친친Y파이Zone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8월 22일 반별 학교 프로그램 1차시를 진행하였다. 셀프탐험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프로그램은 '내 머리속의 거울' 동영상 시청 후 자아 찾기 설문을 통하여 자아찾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앞으로 남은 7회기동안 공감 및 배려를 키워드로 교육을 진행될 예정이다.

여수 YWCA 이경진 간사

● **늘푸른 방과후아카데미 체험활동**

여수Y '늘푸른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들은 7월 16일 여수세계박람회 다녀왔다. 지구온난화와 해양 쓰레기로 인해 생명력을 잃어가는 바다의 모습과 바다와 공존하는 희망적인 미래를 꿈꾸며 여수의 청소년들이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 을 직접 체험, 바다의 중요성을 느끼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전주 YWCA 김은진 간사

● **가족힐링캠프 '사랑의 띠로 하나된 가족' 개최**



전주Y는 8월 10일~11일 학교폭력피해 청소년 및 가족관계 개선을 필요로 하는 20가족을 대상으로, 익산유스호텔에서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가족힐링캠프 '사랑의 띠로 하나된 가족'을 열었다. 본 캠프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가족관계개선사업으로 가족캠프를 통해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의 심리정서적인 갈등을 해소하고, 자신감 회복을 도우며, 부모-자녀가 함께 건강한 가족공동체로서 기능회복을 도우려는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 **북한이탈주민 종합정착지원 협약식**

전북하나센터는 8월 14일 국제로타리 3670지구와 '북한이탈주민 종합정착지원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식을 통하여 국제로타리 3670지구는 북한이탈주민 47세대에 가전제품을 지원하였으며 지역사회 기관과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좀더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제주 YWCA 강지혜 간사

●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이전 기념식**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는 7월 19일 이도1동 상록화관 4층에서 약 1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이전기념식을 가졌다.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는 지난 1998년 4월 제주시 북강빌딩 인근 일하는 여성의 집으로 개관해 제주지역 여성들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14년간 일해오고 있다.

● **동부**

대구 YWCA 김세형 간사

● **제5회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가을나들이 & 백일장**



대구Y는 9월 1일 결혼이민여성가족과 새터민가족이 함께 어울려 안동으로 가을나들이를 떠났다. 나들이 후 백일장을 열었는데 한 새터민은 "이 땅에 벽돌 한 장, 나무 한그루 심지 않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나누어주신 대한민국 국민들과 YWCA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고마운 대한민국 국민과 YWCA 선생님들을 위하여 저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베푸는 사람으로 제2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했다. 5회째를 맞이한 백일장이 앞으로도 새터민과 결혼이민여성들에게 기쁨을 주는 활동이 되길 기대한다.

부산 YWCA

여진경 간사

● 국제교류봉사활동 '니하우! 북경'



부산Y는 8월 20일~23일까지 국제교류봉사활동 '니하우! 북경'을 펼쳤다. 대학Y 8명과 실무자 2명이 북경을 방문하여 문화체험활동을 하고 북경YWCA를 방문하였다. 북경Y에서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북경Y 대학생들과의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사천 YWCA

강선희 간사

● 에너지절약 캠페인



사천Y 소비자 상담실에서는 하절기 전력위기 극복을 위해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사천시 관내 재래시장을 찾아 시민들에게 홍보물(부채)을 배포하고 에너지 절약방법을 알려주는 등 작은 실천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인식시켜 줌으로써 에너지 절약에 동참할 것을 당부하였다.

진주 YWCA

최예진 간사

● 북한안주지원운동 거리캠페인

진주Y는 9월 13일 진주시 대안동 차없는 거리에서 북한안주지원운동 거리캠페인을 진행하였다. 한국YWCA정책 '나눔으로 평화' 운동의 일환으로 펼쳐진 이번 캠페인에서는 영양실조로 유아 사망률이 급증하는 지금 '내 식비의 10분의 1을 북한 어린이와 함께' 라는 주제로 북한어린이의 사진을 전시하고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포항 YWCA

안진숙 간사

● 청소년사랑나눔미



포항Y Y-틴은 8월 25일 청소년 사랑나눔미 '밀반찬을 싣고 달려라~' 행사를 진행하였다. 지역독거노인들을 위해 청소년들이 직접 밀반찬을 만들어 배달함으로써 이웃사랑과 봉사정신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고객님의 소중한 보험으로 더욱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행복을 약속하는 우리의 믿음!

건강한 국민, 건강한 사회, 국민건강보험이 만들어 갑니다!

무니무니해도 건강은 예방이 최고입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평생건강 With You"

국민건강보험은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목적으로 국민의 평생건강을 지키는 세계 최고의 건강보장기관입니다.

감기에서 중증질환까지 진료비 지원은 물론 질병을 좀 더 일찍 발견하고 미리미리 예방하기 위하여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생애전환기건강검진,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원하시죠? 자주 찾아 받게요! 어~! 좋다!

차때, 중풍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노인요양시설 비용 지원 및 직접 방문해서 간호하고 목욕시켜주는 비용 등을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이 딸린대!

임신부 건강관리를 위해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금을 2012년 4월부터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다태아의 경우 2013년 7월부터 70만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건강한 차라니가 아니라

가장까지 지켜주세요

진료비 때문에 가정이 경제적 파탄하지 않도록 특정 암, 중증 화상 환자의 진료비 95% 지원

이젠 어디든 갈수 있어! 날개를 단 거지!

장애인에게는 보청구 구입시 비용 지원 및 치료와 재활 과정에 일시적으로 보청구가 필요한 가입자에게 보청구 대여

이젠 말 못하?

부모님! 이제 불니 걱정마세요! 만 75세 이상 어르신의 완전돌니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국민건강을 위한 최고의 서비스!

앞으로도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평생건강을 책임지는 세계최고의 건강보장기관으로 언젠가지 믿고 찾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리며, 고객님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갈게요!

건강보험 이용이 어려운 농어촌, 낙도, 다문화 가정을 직접 찾아가서 안과, 치과 등 무료진료를 지원하는 '사랑실은 건강천사' 의료봉사 실시

호호~

최고의 행복은 건강이니까!

매일 납부해주시는 보험료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호호~

호호! 두들찬걸요!